

1. 문항카드 1 - 인문계열 1차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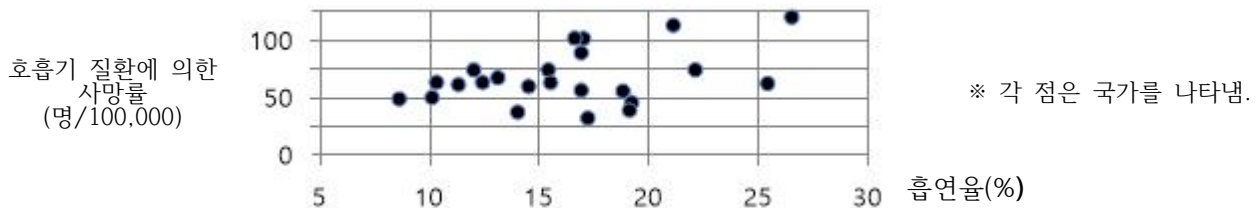
1.1 일반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일반)전형		
계열(과목)/문항번호	인문계열 1차(경제학부, 경영학부) / 1번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통합적 읽기 ·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 · 문화의 의미와 속성 · 일반화의 오류, 표본의 대표성 · 정보의 구성, 문제 해결 방법 	
예상소요 시간	40분		/ 100 분

1.2 문제 및 제시문(문항)

제시문 [가]를 근거로 우리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는 정책을 실시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결정의 타당성을 [나]~[사]를 활용하여 평가하시오.

[가] 다음은 2017년 유럽 국가별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흡연율 관련 자료를 정리한 그래프이다.



[나] 대규모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 지지도를 조사하려면,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는 어려우므로 성별, 나이별, 지역별 조건 등을 고려하여 추출한 일정 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때 유권자 집단 모두를 모집단, 조사 대상이 되는 유권자 집단을 표본이라고 한다. 만약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조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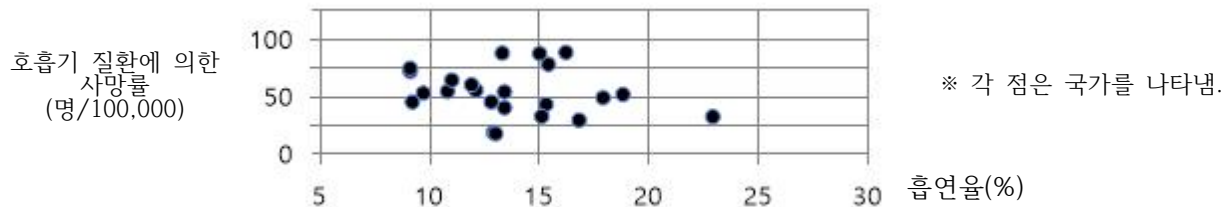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다] 반대 측 제1 토론자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는 단순히 투표율이 낮다는 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16년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의뢰하여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후보자들에 대해 잘 몰라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등이 투표를 하지 않는 까닭으로 꼽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투표율이 저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정치 문화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을 조장하는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내버려 둔 채 강제로 투표만 하게

한다고 해서 대의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재구성

[라] 다음은 2017년 유럽 국가별 여성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흡연을 관련 자료를 정리한 그래프이다.



[마] 존은 자신의 건강 상황을 직접 살피고 싶어 사설 연구소에서 유료로 혈액 검사를 받았고, 더 많은 수치를 얻을 방법을 찾다가 배설물을 택배로 보내어 분석하기에 이르렀다. 존은 복합반응단백질 수치를 눈여겨보았다. 이는 인체의 염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정상이라면 이 수치가 1을 넘으면 안 된다. 존은 5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치가 10, 다시 15로 올라갔다. 이즈음에, 존은 의사를 찾아 자신이 발견한 것을 알려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의사가 물었다. “혈압이 높습니까?”/“아니오, 멀쩡합니다.”/ “그런데 왜 오셨죠?”/“그게, 제 데이터에서 이런 엄청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그 데이터가 지나치게 ‘학술적’이며, 임상적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말했다. “염증은 혈압이 높아야 발생해요. 단순히 차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말고 혈압이 높아졌을 때 다시 찾아오세요.” 다음 날, 존은 왼쪽 복부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급성 염증으로 인한 질병인 심각한 게실염 진단을 받았다. 존이 옳았다. 이 의사는 평소 임상적인 증상만 다루면서,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는 데이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 루크 도멜, 『만물의 공식』 재구성

[바] 1920년대 중반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 미드는 남태평양에 있는 사모아에서 청소년들의 행동을 관찰한 후, 미국 청소년 문화와 비교하였다. 미드에 따르면, 사모아의 청소년은 미국 청소년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거의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사모아의 청소년도 신체적, 정신적 성장의 불균형 자체는 경험하지만, 그로 인한 부적응이나 불만 표출 등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드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사모아의 문화 전반을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과 사모아는 사회 규범의 제재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당시 미국은 사회 규범이 매우 강하였고, 그러한 규범의 제재는 청소년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 청소년의 대부분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반면, 사모아는 사회 규범이 다소 느슨한 편이었으며, 청소년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었다. 또 경쟁의 정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욕망을 누르고 학업에 집중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와는 달리 사모아는 경쟁적인 사회가 아니었다. 미드는 미국과 사모아의 환경 차이가 두 사회의 청소년이 받는 사춘기 스트레스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재구성

[사] 스웨덴 스톡홀름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기 엄마는 카페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카페 밖에는 낮잠 자는 아기들을 태운 유모차들이 나란히 세워져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기온과 상관없이 아이가 신선한 공기에 자주 노출될수록 더욱 건강하게 자란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 문화가 다른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덴마크계 미국인 젊은 부부가 미국 뉴욕의 한 식당에서 체포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유모차에 탄 아이를 밖에서 두 채 식사하였기 때문이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1.3 출제의도

- 본 문항에서는 수집된 데이터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래프에 내포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즉, 주어진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능력과 자료를 읽고 분석하여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명확히 해석하여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인식하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능력은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국어 교과나, 사회·문화 과목 모두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주제이다. 또한 그래프에 내포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 즉 두 변수 간의 양/음의 관계를 도출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능력을 보고자 한다.
- 우선 우리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기로 한 정책 결정’ 과정의 이유를 [가]의 그래프를 통해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가]의 그래프에서 호흡기 질환 사망률과 흡연율은 우상향의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자료상의 이러한 표면적 관계를 정부가 인과관계로 혼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논리적 추론과정을 평가한다.
- 제시문 [가]는 그래프를 통해 호흡기 질환 사망률과 흡연율 사이의 양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에 추가적으로 이 그래프가 2017년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제시문 [나]를 통해 표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때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조사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는 점을 [가]와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
- 제시문 [다]에서 토론자는 근본적인 원인을 내버려 둔 채 표면적인 현상만 바꾼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이를 [가]와 연계하여 국민건강증진을 흡연율의 변화로 이룰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 제시문 [라]는 그래프를 통해 호흡기 질환 사망률과 흡연율 사이의 음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를 [가]와 연결하여 [가]의 그래프를 통해 찾아낸 관계와 상반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통해 호흡기 질환 사망률과 흡연율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제시문 [마]에서는 의사와 ‘존’의 대화를 통해 염증이 표면적인 현상인 고혈압 때문이 아니라 직접적인 원인인 복합반응단백질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표면적인 현상인 고혈압이 없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인 복합반응단백질로 염증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를 보여준다.
- 제시문 [바]는 미국 문화 인류학자 미드의 연구를 소개하는데 여기서 미드는 규범의 제재, 문화의 차이가 미국과 사모아의 청소년들이 각각 받는 스트레스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 제시문 [사]는 양육문화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동일한 행위가 사회·문화적 관습, 규범, 환경이 다른 국가에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문제를 해결 과정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의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일반화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를 통해 표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때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제시문 [가]는 유럽 국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그래프이므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음을 파악한다. 또 제시문 [바], [사]의 사례를 토대로 사회·문화적 관습, 규범, 환경의 차이로 인해 어떠한 행위가 모든 사회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나], [바], [사]를 종합해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사회·문화적 차이가 크고 모집단과 표본집단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의 자료의 결과를 우리 정부가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을 추론한다.

- 둘째, 표면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관계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파악한다. 제시문 [라]의 그래프에서 호흡기 질환 사망률과 흡연율은 음의 관계임을 찾아내고 이 관계가 [가]의 그래프를 통해 찾아낸 관계와 상반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제시문 [마]에서는 의사와 ‘존’의 대화를 통해 염증이 표면적인 현상인 고혈압 때문이 아니라 직접적인 원인인 복합반응단백질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서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됨을 이해하고 [라], [마], [다]를 종합해 ‘호흡기 질환 사망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큰 흡연율을 낮추는 정부의 정책은 타당하지 않음을 추론한다.

1.4 출제근거

1.4.1 교육과정 근거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 국어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제시문 [가],[나],[다], [라],[마],[바], [사]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12화작01-03]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제시문 [가],[나],[다], [라],[바],[사]
	성취 기준 2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제시문 [가],[나],[다], [라],[바],[사]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가],[다],[라], [바]
	성취 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제시문 [가],[나],[다], [라],[마],[바],

	성취 기준 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사] 제시문 [가],[라],[마]
	성취 기준 4	[12독서02-05] 글에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나],[다],[마], [바],[사]
	성취 기준 5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가],[라]
	과목명: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 기준 1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	제시문 [가],[라]
	성취 기준 2	[12언매03-02]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제시문 [가],[라]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2사문01-03]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과 특징을 비교한다.	제시문 [나]
	성취 기준 2	[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제시문 [바],[사]
	성취 기준 3	[12사문03-04]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탐구하고 문화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바],[사]

1.4.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교과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여부
고등학교 국어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18	392-393	제시문 [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18	28	제시문 [나]	○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0	99	제시문 [바]	○
	서범석 외	지학사	2018	97	제시문 [사]	X

교과서 외						
자료(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여부
OECD Health Statistics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20	33-34	제시문 [가], [라]	○

만물의 공식	루크 모델	반니	2014	19-21	제시문 [마]	○
--------	-------	----	------	-------	---------	---

1.5 문항 해설

1.5.1 위원회 자체 평가 의견

인문계열 1차 1번 문항은 7개의 제시문 중에서 교과서 지문을 활용한 4개의 제시문과 2개의 통계자료, 그리고 교과서 밖의 자료에서 1개가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교과서 자료를 비중있게 활용함으로써 수험생의 입장에서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사회·문화> 등의 교과서 지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 하였으며 통계 자료 또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정부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제시문 [가]는 흡연율과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OECD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낸 자료로써 그래프를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화법과 작문>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어떤 선행지식 없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출제된 내용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의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수집 방법 중 질문지법의 작성과 관련한 유의사항의 하나인 표본집단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성격을 갖추고 있을 때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 수업에 기본적으로 참여한 학생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재구성한 내용으로 <독서>와 <화법과 작문> 교과와 연계하여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성취기준 등을 통해 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통계 결과만을 갖고 양적 측면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일어나는 내면을 파악함으로써 질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별도의 선행지식 없이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라]는 흡연율과 여성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OECD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낸 자료로써 그래프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흡연율과 여성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 간에는 특별한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 분석은 고등학교 <사회·문화> 또는 다른 사회 교과서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래프 분석을 통해 평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면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마]는 루크 모델의 『만물의 공식』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국어 교과의 <독서>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라는 성취기준[12독서03-03]과 다양한 직업군에 따른 직업 윤리와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12생윤03-01]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간과하고 자신의 기준에서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는 직업윤리 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수업의 기본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성취기준 [12사문03-01]과 연계하여 문화를 이해할 때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여 이해해야 하는 문화 상대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사회 교과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사] 또한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합사회>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학생이라면 이해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인문계열 1차 1번 문항은 교과서의 지문을 많이 활용한 문제로서 학생들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통계자료의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의 제시문을 종합적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선행지식 없이도 학교 수업만으로도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점에서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1.5.2 출제 검토 교사 의견

인문계열 1차 1번 문항은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국어>, <화법과 작문> 등의 내용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래프 분석과 관련하여 별도의 선행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교과서 지문을 활용한 점은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된 자료들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총체적 분석과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가]는 흡연율과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그래프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사회>교과 또는 <화법과 작문>, <사회·문화> 교과 등에서 자료 분석 및 해석 능력 그리고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다루고 있는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에서 평소 학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출제되었으며 표본집단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문화> 교과서의 질문지 작성과 관련한 주의사항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내에서 출제가 됐음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시문 [다]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단순히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 문화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을 조장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와 조화의 필요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치와 법>, <국어> 과목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이해하거나 본질적인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평소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적용된 문제라 볼 수 있다.

제시문 [라]는 여성 흡연율과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 자료와 비교했을 때 두 변수 간에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통합사회>와 <화법과 작문>등의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 분석 및 해석 능력 그리고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별도의 선행지식 없이도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마]는 의사가 고혈압과 염증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파악하지 않아 게실염이 발생할 수 있었던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총체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나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고등학교 <독서>, <생활과 윤리> 등의 과목에서 필자의 숨겨진 의도를 비판하며 읽거나 직업윤리와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바]와 [사]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평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문화 상대주의와 관련해서는 <사회·문화>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통합사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여러 관점을 갖고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학교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지문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어떤 선행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주어진 그래프와 제시문만을 갖고도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1.5.3 자문위원 평가 의견

인문계열 1차 1번 문항에 대한 자문 교사들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자문교사 14명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여 평균 4.50(5점 만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을 통해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제시문들이 고등학교 교과서를 기준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문교사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 한지에 대해서는 4.71점을,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질문에는 4.64점을 보이고 있다. 제시문 [나]의 교육과정 범위에 대한 평가는 4.93점, 교육과정 수준은 4.86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시문 [다]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모두 4.79점으로 나타났다. 제시문 [라]의 교육과정 범위는 4.50점, 교육과정 수준은 4.64점으로 나타났으며 제시문 [마]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모두 4.36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시문 [바]는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모두 4.64점으로 평가 되었으며 제시문 [사]의 경우도 교육과정 범위는 4.93점, 교육과정 수준은 4.79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문 교사의 평가를 통해 인문계열 1차 1번 문항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모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것으로 보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문계열 1차 1번 문항의 전체적인 난이도 수준은 5점 만점에 2.71점으로 평가한 것을 통해 학생들의 입장에서 난이도 수준은 보통이거나 쉽게 접근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제시문들에 대한 난이도 역시 평균 2.36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입장에서 쉽거나 보통의 난이도 수준에서 분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문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인문계열

1차 1번 문항의 난이도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출제가 이루어졌고 그래프 분석 또한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한 학생이라면 평이하게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문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비교적 평이하게 이해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타당성을 평가하는 문제 유형은 서강대학교의 기출 문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유형이고 타 대학에서도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유형이기에 논술전형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보통 수준에서 접근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제시문의 분량이 많지 않고 문장이 간결하여 학생 중심적인 관점에서 출제가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타당성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면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교과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과 수업에서 도표, 그래프, 지문,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수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1.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기준	배점
없음	<p>1) 정부가 [가]에서 나타난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흡연율의 양/정의 상관관계를 근거로 정책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지적(기술)하였는가? - [가]의 그래프에서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흡연율 사이에 우상향추세선이 존재하고 이는 양/정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기술해야 함.</p> <p>2) 제시문 [나]에서 제시하는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를 [가]의 그래프가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라는 점과 연계해 기술하였는가?</p> <p>3) 제시문 [다]의 투표율 관련 사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면적 현상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기술하였는가? - 제시문 [다]를 표본의 대표성 문제와 관련하여 서술하는 것은 출제의도와 거리가 있음.</p> <p>4) 제시문 [라]에 나타난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흡연율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가? - 제시문 [라]의 그래프가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설명하였는가? - 제시문 [라]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크지 않고 완만한 점을 지적하며 변수간 관계가 없다고 요약할 수도 있음. - 제시문 [라]와 [가]의 변수간 관계 불일치를 통해 흡연율과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는가? - 호흡기계 질환 사망률과 흡연율의 관계를 조절하는 제3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술하면 가점.</p> <p>5) 제시문 [마]의 사례를 통해서 의사가 고혈압과 염증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하는 오류를 보여준다는 것을 기술하였는가?</p> <p>6) 제시문 [바]~[사]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각 국가/사회의 규범, 관습, 특수한 환경과 상황의 이해 없이 동일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효과가 미비하거나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하였는가? - 제시문 [바]~[사]의 사례를 단순히 문화 상대주의의 사례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서술은 출제의도와 거리가 있음.</p> <p>7) 제시문 [나]~[사]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 결정은 타당하지 않음을 기술하고 있는가?</p> <p>8) 제시문 [다], [라], [마]를 적절히 연결하여 [가]의 현상은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는 정책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논리적으로 도출하고 있는가?</p> <p>9) 제시문 [나], [바], [사]를 적절히 연결하여 다른 문화의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기초한 정책을 우리나라에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결론을 논리적으로 도출하고 있는가?</p>	320

1.7 답안 사례

제시문 [가]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국가별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흡연율의 추세선이 우상향하므로 두 변수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우리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는 정책을 실행한다고 할 때 얼핏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제시문 [나]~[사]는 이러한 결정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들을 제시한다.

우선 [라]의 그래프에서 호흡기계 질환과 흡연율은 우하향하는 추세선이 존재하므로 [가]와는 달리 음의 관계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동일한 변수들 사이에 상반되는 관계가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흡연이 호흡기계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마]에서 의사는 존의 혈압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염증이 발생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으나 결과적으로 염증은 발생하였다. 의사는 평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던 두 현상을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의 토론자는 근본적인 원인을 방치한 채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바꿔봤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부가 흡연율을 낮춘다고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낮출 것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해 나라별로 제도와 문화가 현저히 다를 경우 생활 모습에 큰 차이가 나고 같은 행위도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시문 [나]는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조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설령 [가]를 통해 유럽에서 흡연율이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도, 여러 가지 제도, 문화, 생활환경이 다른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결론적으로, 흡연과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풍습, 제도, 사회적 관념이 매우 다른 유럽만의 사례를 일반화해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는 정부의 정책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

2. 문항카드 2 - 인문계열 1차 2번

2.1 일반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일반)전형	
계열(과목)/문항번호	인문계열 1차(경제학부, 경영학부) / 2번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문학
		통합사회, 경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잉여 · 효율성 · 시장균형 · 시장실패 · 형평성 · 윤리적 소비
예상소요 시간	60분	/ 100 분

2.2 문제 및 제시문(문항)

제시문 [가]를 읽고 [나]~[바] 각각에 대해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한지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효율성 추구의 필요성과 한계점에 대해 논하시오.

[가] 효율성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의 원칙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합리적 선택의 기준이 되어 왔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의 크기로서 소비자가 그 상품에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팔면서 얻었다고 느끼는 이득의 크기로서 생산자가 그 상품을 판매해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상품을 생산하는데 든 비용을 뺀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한 것을 총잉여라고 하는데, 총잉여는 시장에서 상품 교환에 참여한 경제 주체들이 얻게 되는 사회 전체의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총잉여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시장 균형 수준에서 가장 커진다. 총잉여가 최대로 된다는 것은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장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특히, 환경오염 등과 같이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이에 관련한 상품 생산 또는 선택 행위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 이를 개선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벌금 부과 등의 직접 규제 또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경제적 유인을 통해 대기오염이라는 시장 실패를 개선할 수 있는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에서 온실가스의 배출 허용량을 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경우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경제』 교과서 재구성

[나] “짐, 자기.” 그녀가 외쳤다. “나를 그런 식으로 보지 마.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을 뿐이니까. 당신한테 선물 하나 주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는 없었어. (‥) 내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멋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선물을 사 왔는지 짐작도 못 할걸.”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짐이 힘겹게 물었다. (...) 짐이 외투 주머니에서 꾸러미 하나를 꺼내더니 탁자 위로 툭 던졌다. “절대로 날 오해하지는 마, 델.” 그가 말했다. “당신이 머리를 어떤 식으로 자르건 밀어 버리건 아내에 대한 내 사랑을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 꾸러미를 풀어 보면 어쩌서 내가 처음에 잠깐 நீ이 나갔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야.” 하얀 손가락들이 날렵하게 포장 끈과 포장지를 잡아 뜯었다. 그러자 곧 환희에 찬 탄성이 터졌다. 하지만 그다음에는 아, 불쌍해라! 그녀의 마음이 급변하여 발작적인 눈물과 통곡이 뒤를 이었고, 이 집 주인은 혼신의 힘을 다해 아내를 위로해야 했다. 장식용 머리핀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델이 어느 가게 진열창 너머로 본 뒤 오랫동안 흠모해 마지않던 장식용 머리핀 세트였다. (...)

“굉장하지 않아, 짐? 이것 찾으려고 온 시내를 다 뒤졌어. 이제부터 자기는 하루에 백 번쯤은 시계를 보게 될걸. 시계 좀 이리 줘 봐. 자기 시계에 달면 얼마나 잘 어울릴지 보고 싶어.” 짐은 그 말에 따르는 대신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을 뒷머리에 받친 채 싱긋 웃었다. “델.” 그가 말했다.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들은 한동안 다른 곳에 넣어 두자. 그것들은 지금 당장 사용하기에는 너무 멋진 것 같아. 당신 머리핀 살 돈을 마련하려고 시계를 팔았거든. 자, 이제 고기를 올리면 어떨까 싶은데.” (...)

오늘날 현명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는 선물을 주고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들이 가장 현명했다는 것이다.

- 오 헨리, 『크리스마스 선물』

[다] 국토 대부분이 사막 지역인 A 국가는 석유 매장량이 많은 대신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 A 국가는 여러 국가에서 농작물을 수입하는데, B 국가에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한다. B 국가는 풍부한 노동력과 적절한 기후 조건을 통해 전 국토의 약 70%에 달하는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한다. B 국가는 교통수단을 움직이는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A 국가와 C 국가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라]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가을이면 낙엽을 긁어모아 태우곤 한다. 그러나 낙엽을 태우는 것은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이므로 비용을 들여 소각장으로 옮겨 그곳에서만 태우도록 정부가 법적 규정을 만들고, 예외 규정을 두어 각 가정이 1년에 한 번씩만 소량의 낙엽을 태울 수 있도록 했다(나머지 낙엽들은 소각장으로 옮겨야 한다). 각 가정마다 낙엽을 태우면서 돈도 절약하고 가을의 정취도 느끼곤 했다. 그리고 정부는 각 가정이 원하는 경우에 낙엽 태울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했다. 그리하여 한 부자가 낙엽 태울 권리를 이웃들에게서 산다. (...)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낙엽을 긁어모아 태우는 수고(때로는 노동)를 덜기 위해 그 부자에게 낙엽 태울 권리를 판다. (...) 이제 낙엽 태울 권리를 파는 쪽이든 사는 쪽이든 사람들은 낙엽 태우는 행위를 깨끗한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동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상품으로 여긴다.

- 마이클 샌델, 『왜 도덕인가?』 재구성

[마] 층간 소음에 따른 주민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전화 민원 상담실인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795건에 불과했던 층간 소음 민원이 2013년 1만 8,524건으로 크게 늘어난 이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층간 소음에 따른 주민 분쟁을 완화하고 갈등을 해결해 주는 일을 담당하고 있지만 층간 소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 현장 진단을 하기도 어렵고,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주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재구성

[바] 스타트업 기업인 A사(社)는 마트 또는 편의점의 제품 가격표를 액정식 디스플레이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공급자들은 이 기업의 액정식 가격표를 이용해 동일한 제품의 가격을 달리 책정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의 가격인 시장 균형 가격이 IT 기술 및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 (…) 모든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시장 균형 가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보다 비싼 값에도 해당 제품을 구매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들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보다 싼 값에 제품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는 공급자들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수의 시장 균형 가격이 500원이라면, 최대 800원의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생수 한 병을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는 500원을 가격으로 지불함으로써 300원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생수 한 병을 제조·판매하는 비용이 450원인 생수 공급자는 500원의 가격을 받음으로써 50원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 보자. 만일 A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가격표를 자유자재로 바꾸어 비싸게라도 생수를 사서 마시고 싶은 이들에게는 높은 가격을 표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생수 공급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대 800원을 주고서라도 물을 사 마시고 싶은 사람을 파악한 뒤 A사의 액정식 가격표를 활용하여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800원의 가격에 생수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 『매일경제』, 2019. 5. 27. 재구성

2.3 출제 의도

- 본 문항은 최소비용 최대만족의 추상적인 효율성 개념이 시장 균형을 통한 총잉여의 극대화라는 구체적인 개념과 동일한 것임을 이해하고, 이러한 효율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여러 상황에서 효율성 기준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본 후, 이러한 검토를 통해 효율성의 추구가 필요한 이유와 효율성 추구의 한계점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 그에 따라 제시문 [가]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제시문 [나]~[바]가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효율성 추구의 필요성과 한계점을 논하도록 하였다. [가]에서 정의된 효율성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로서 이는 시장에서의 총잉여 최대화 추구를 의미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다], [라], [바]가 효율성, 즉 총잉여 최대화에 있어 바람직한 상황인 반면, [나], [마]는 효율성이 훼손되는 상황임을 [가]에서 주어진 정보와 개념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이 과정에서 각 제시문에서 나타나는 효율성 기준의 필요성, 한계점 또는 둘 모두를 종합하여 제시한다.
- 제시문 [가]에서는 최소비용 최대만족의 추구하는 효율성 개념이 시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의액에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비용인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의 최소 수용 용의액에서 생산자가 실제 지불받는 금액인 생산자 잉여의 합으로 정의되는 총잉여의 개념으로 구체화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즉, 시장 균형에서 총잉여가 극대화되고 따라서 총잉여의 극대화는 효율적 자원 배분, 다시 말해 효율성 충족을 의미한다. 또한 제시문 [가]에서는 시장 균형이 효율성 충족에 실패하는 시장 실패를 대기오염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를 통해 설명하고, 이 경우 정부가 벌금 부과 등 직접 규제 또는 오염배출권 거래제 등과 같은 경제적 유인을 통해 개입함으로써 효율성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제시문 [나]에서는 사랑하는 가난한 부부가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팔아 상대방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했으나 그 각각의 선물이 자신의 물건이 없으면 쓸모없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팔기 전에 비해 총잉여가 감소하는, 즉 최소비용 최대만족에 어긋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상황을 묘사하므로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저자는 마지막에 이 부부의 이러한 행위가 가장 현명했다고 “오늘날 현명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효율성 추구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배려의 가치를 암시하고 있다.
- 제시문 [다]에서는 식량이 부족하나 석유가 풍부한 A국과, 석유가 부족하나 식량이 풍부한 B국이 무역이라는 국가 간 시장 거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여 모두가 이익을 보는, 즉 무역을 하기 전에 비해 총잉여가 증대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제시문 [다]는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상황이며,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제시문 [라]에서는 낙엽을 태우는 행위를 예로 들어, 대기오염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와 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온실가스배출거래권 제도를 묘사하고 있음을 제시문 [가]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제시문 [라]를 제시문 [가]와 연계하면 이 상황은 대기오염이라는 총잉여의 감소가 정부 개입을 통해 증대되는, 즉 비효율성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효율성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시문 [라]는 대기오염이라는 시장 실패를 온실가스배출거래권 제도라는 시장 거래 형태의 경제적 유인을 통해 정부가 개선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대기오염을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인식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윤리의식이 약화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 제시문 [마]에서는 층간 소음에 따른 주민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는 현상을 서술하고 있는데, 제시문 [가]에 따르면 층간 소음도 부정적 외부효과의 한 예이며, 따라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 행위가 총잉여를 감소시키는 일종의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효율성이 훼손되는 상황임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정부가 벌금 등과 같은 직접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 그러한 효율성의 지속됨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제시문 [마]는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제시문 [바]에서는 한 기업이 개발한 액정식 가격표가 인공지능 기술 및 빅데이터 활용과 결합할 때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 상황을 가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생수의 시장 균형 수준에서의 가격은 모든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동일하므로 시장 균형 가격에서 거래할 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발생하는데, 이들의 합인 총잉여는 시장 균형에서 가장 커진다는 것을 제시문 [가]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공급자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각 개별 소비자의 최대 지불용의액을 알고 액정식 가격표를 이용해 개별 소비자에게 각 개별 소비자의 최대 지불용의액을 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소비자 잉여가 모두 생산자 잉여로 바뀌게 됨을 제시문 [가]의 내용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 균형 수준에서 생수를 구매했던 소비자는 여전히 생수를 구매할 용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 거래량은 감소하지 않고 따라서 총잉여도 감소하지 않을 것임을 제시문 [가]에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바]는 총잉여가 여전히 극대화되는 상황이므로 효율성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잉여를 생산자가 모두 가져감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간 잉여의 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제시문 [다], [라], [바]는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상황이라 할 수 있고, 제시문 [나], [마]는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는 특정 자원이 부족한 두 국가가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모두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그리고 [마]는 소음이라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주민 갈등이라는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효율성 기준의 추구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나]는 효율성 추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라는 정서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라]는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정부의 거래권 제도가 환경오염을 시장 거래의 대상인 상품으

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윤리의식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바]는 효율성이 충족되더라도(즉 총잉여가 극대화되더라도) 시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잉여를 생산자가 가져가게 되어 소비자나 생산자 간 분배악화로 인한 형평성 저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효율성 추구의 한계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2.4 출제 근거

2.4.1 교육과정 근거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 국어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제시문 [나],[다],[라], [마]
	성취 기준 2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제시문 [가],[다],[라], [마],[바]
	성취 기준 3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 [나]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각 제시문 간의 연계
	성취 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제시문 [다],[라],[마], [바]
	성취 기준 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제시문 [나],[라]
	성취 기준 4	[12독서02-04]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며 감상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나]
	성취 기준 5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다],[라],[마]
	성취 기준 6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가]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4-02]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 [나]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제시문 [가],[나],[마], [바]
성취 기준 2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제시문 [라]
성취 기준 3	[10통사05-03]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제시문 [다]
성취 기준 4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제시문 [라]
성취 기준 5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제시문 [라]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1	[12경제02-02]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총잉여의 극대화)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제시문 [가],[나],[다], [라],[마],[바]
성취 기준 2	[12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	제시문 [가],[라],[마]
성취 기준 3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가],[라],[마]
성취 기준 4	[12경제04-01]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을 중심으로 무역 원리를 파악하고,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한다.	제시문 [다]

3.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제시문 [마]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시문 [마]
성취 기준 2	[12윤사04-05]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제시문 [라]

2.4.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교과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여부
고등학교 통합사회	이진석 외	지학사	2018	62, 140, 143	제시문 [가]	○
고등학교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0	145	제시문 [가]	○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143	제시문 [다]	○
고등학교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20	68-71	제시문 [가]	○
고등학교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2019	79, 80, 83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금성출판사	2018	188	제시문 [마]	○

교과서 외						
자료(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여부
크리스마스 선물	오 헨리	민음사	2019	46-49	제시문 [나]	X
왜 도덕인가?	마이클 샌델	한국경제신문	2010	47	제시문 [라]	○
IT·빅데이터가 파괴한 가격정찰제 소비자가 지불할 의향만큼 받아낸다	신현규	매일경제	2019	신문기사	제시문 [바]	○

2.5 문항 해설

2.5.1 위원회 자체 평가 의견

인문계열 1차 2번 문항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각각의 제시문을 종합하여 효율성 추구의 필요성과 한계점에 관한 문제로서 고등학교 교과서와 교과서 외 자료를 적절히 배분하여 출제하였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통합사회>, <경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종합하여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특히 사회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효율성을 국어교과나 도덕교과와 연계하여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경제> 교과에 대한 선행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각각의 제시문의 사례를 통해 효율성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평소 학교수업의 기본에 충실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 제시문에서 주장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사회교과의 <통합사회>와 <경제>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효율성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시장 거래에서의 총잉여의 최대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균형에서 달성된다. 또한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장 실패가 존재

하는 경우 정부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기반하여 제시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나]는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부부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팔아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서로에게 쓸모없게 됨으로써 총잉여가 감소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독서>, <경제> 교과목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과 대안탐색 그리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거나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이루어진다는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자원이 부족한 두 나라가 교역을 통해 총잉여를 증대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을 중심으로 무역 원리를 파악하고 자유무역과 보호 무역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시문 [라]는 마이클 샌델의 『왜 도덕인가?』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의 사례로 총잉여가 감소하고 있는 내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낙엽태울 권리에 대한 거래를 통한 대기오염 감소로 총잉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고등학교 <통합사회>, <경제>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탐구하는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점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소음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총잉여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소음 발생이라는 문제가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를 통해 효율성만을 추구할 경우 정서적 가치가 무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바]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IT기술과 빅데이터를 통해 공급자가 개별 소비자에게 다른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 잉여로 가져올 수 있는데 기존의 시장 균형 가격에서 최대화된 총잉여가 감소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평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활동이나 NIE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라면 기사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인문계열 1차 2번 문항은 효율성의 개념을 총잉여와 연계하여 이해하고 있는지와 각각의 제시문을 통해 효율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기업, 개인의 시장 활동을 통해 총잉여의 극대화를 위한 시장의 균형과 연계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과서의 자료와 교과서 밖의 자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5.2 출제 검토 교사 의견

인문계열 1차 2번 문항은 효율성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총잉여와 시장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한계점에 대해 묻고 있다. 각각의 제시문들이 교과서 내의 지문과 교과서 밖의 지문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경제> 교과에 대한 선행지식이 없어도 평소 <통합사회> 교과나

〈국어〉 교과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이수한 학생이라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

제시문 [가]는 〈통합사회〉와 〈경제〉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총잉여가 극대화될 때 가장 높은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사회과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본다.

제시문 [나]는 오헨리의 작품을 예로 들면서 부부가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팔아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하여 서로에게 선물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쓸모없게 됨으로써 총잉여가 감소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부부에게는 무형의 가치 예를 들면 사랑, 가족, 서로에 대한 배려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경제 주체의 바람직한 역할 등과 연계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과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으로 자원이 부족한 두 나라가 교역을 통해 총잉여를 증대시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즉 총잉여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통합사회〉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학생이라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교육과정 준수에 충실히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라]는 대기오염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효율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총잉여를 증대시키려는 내용이다. 이는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정부의 거래권 제도를 통해 환경오염을 마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함으로써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윤리의식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경제〉,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다고 보며 어떤 선행지식 없이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수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소음이라는 부정적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에 의해 총잉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통합사회〉 교과서 및 〈경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과 외부 효과와 같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요인 등 사회과 교육과정과도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러한 면에서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바]는 신문 기사를 활용한 내용으로 스타트업 기업인 A회사의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판매자가 개별 소비자에게 가격을 책정하여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증대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고 시장 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을 통한 균형 가격을 형성하여 총잉여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경제〉교과에 대한 선행지식이 없어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통합사회〉 시간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통합사회〉, 〈경제〉, 〈생활과 윤리〉의 내용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교과서 밖의 자료인 신문기사나 오헨리의 작품은 〈독서〉, 〈국어〉, 〈문학〉 교과와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평소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참여한 학생이라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3 자문위원 평가 의견

인문계열 1차 2번 문항에 대한 자문 교사들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여 평균 4.64(5점 만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을 통해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제시문들이 고등학교 교과서 <통합사회>, <경제>, <생활과 윤리>를 기준으로 제시되었고 교과서 밖의 자료 또한 신문기사나 문학작품에서 출제되어 평소 독서활동이나 신문읽기 등의 학교 수업에 충실한 경우라면 학생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문교사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 한지에 대해서는 4.64점,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4.71점을 보이고 있다. 제시문 [나]의 교육과정 범위에 대한 평가는 4.29점, 교육과정 수준은 4.36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시문 [다]의 교육과정 범위는 4.71점, 교육과정 수준은 4.79점으로 나타났다. 제시문 [라]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모두 4.21점으로 나타났으며 제시문 [마]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역시 4.64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시문 [바]는 교육과정 범위는 4.43점과 교육과정 수준은 4.50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문 교사의 평가를 통해 인문계열 1차 2번 문항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모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것으로 보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문계열 1차 2번 문항의 전체적인 난이도 수준을 살펴보면 5점 만점에 2.86으로 평가되어 학생들의 입장에서 난이도 수준은 보통이거나 쉽게 접근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제시문들에 대한 난이도 역시 평균 2.71점으로 쉽거나 보통의 난이도 수준으로 체감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문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인문계열 1차 2번 문항의 전체 난이도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출제가 이루어졌고 교과서 밖의 문학작품이나 신문기사 자료도 평소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한 학생이라면 평이하게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문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비교적 평이하게 이해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문제 유형은 서강대학교의 기출 문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유형이고 다른 대학에서도 꾸준히 출제되는 유형이기에 논술전형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보통 수준 이내에서 접근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제시문의 분량이 많지 않고 문장이 간결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문교사 모두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주어진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수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2.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기준	배점
없음	<p>1) [가]에 명시된 효율성과 시장실패를 정확히 이해하였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추구하는 효율성이 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총잉여 최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였는가? - 시장 균형에서 총잉여가 최대화된다는 것을 이해하였는가? - 그러나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시장에서 자원이 사회적 최적보다 많이 생산됨으로써 시장 균형이 총잉여를 최대화하지 못하는, 즉, 효율성이 훼손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정부가 개입해 시장 실패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는가? <p>2) 위의 이해를 바탕으로 [나], [마]는 비효율성(총잉여)이 발생, 유지되는 상황이며, [다], [라], [바]는 효율성(총잉여)이 증대하거나 최대인 상황임을 찾아내었는가?</p> <p>3) 2)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제시되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판매해 구입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서로에게 쓸모없게 되어 각자의 잉여가 감소함으로써 총잉여가 감소하게 되는 (또는 최소비용 최대만족이 훼손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 상황임을 기술하였는가? - [다]는 식량이 부족한 A 국가와 석유가 부족한 B 국가가 교역을 통해 모두 이득(잉여)이 증대하여 총잉여가 증대되는, 즉 효율성에 긍정적인 상황임을 기술하였는가? - [라]는 대기오염의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시장실패가 발생해 총잉여가 감소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적 유인을 이용해 개입함으로써 시장실패에 따른 효율성 증대를 꾀하고 있다는 점을 기술하였는가? - [마]는 소음의 외부효과에 따른 시장실패가 발생해 총잉여가 감소한 비효율적 상황이며, 정부의 개입이 없어 효율성 저하가 유지되는 상황임을 기술하였는가? - [바]는 IT 기술과 빅데이터를 통해 공급자가 각각의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최대 금액을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 기존의 시장 균형 가격에서 달성되었던 최대화된 총잉여의 감소없이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로 이전될 뿐이어서 효율성은 여전히 달성된 상태임을 기술하였는가? <p>4) [다]~[라]에 각각 나타난 효율성 기준의 필요성, 한계점 또는 둘 모두를 파악하여 적절히 종합하였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성 기준의 필요성을 [다], [마]를 통해 기술하였는가? [다]를 통해 특정 자원이 부족한 두 국가가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모두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그리고 [마]를 통해 소음이라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술함으로써 효율성 기준의 추구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였는가? - 효율성 기준의 한계를 [나], [라], [바]를 통해 기술하였는가?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 효율성 기준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라는 정서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라]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정부의 거래권 제도가 환경오염을 시장 거래의 대상인 상품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윤리의식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바]를 통해 시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 즉 총잉여를 생산자가 대부분 가져가게 되어 소비자와 생산자 간 분배악화로 인한 형평성 저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술하였는가? - 이러한 제시문 각각의 효율성 함의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다], [마]로부터 효율성 추구(즉, 총잉여 극대화 추구)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나], [라], [바]를 통해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경우, 사랑과 배려 등과 같은 정서적 가치, 환경오염에 대한 윤리의식, 분배정의와 형평성 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적어도 그 일부를) 기술하였는가? 	480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에서 제시된 효율성의 정의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였다고 판단되면 총잉여라는 용어를 반드시 쓸 필요는 없음. - 효율성 추구의 필요성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다], [라] 뿐 아니라 [마]를 추가로 활용해 기술해도 무방함. -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다], [라], [바]와 바람직하지 않은 [나], [마]를 적절히 구분했다 하더라도 효율성 추구의 필요성과 한계점을 논하지 않았다면 감점. - [바]에 대해 효율성 관점에서 “변화가 없다” 또는 “기존과 차이가 없다” 등으로 기술했다 하더라도 효율성 감소 없이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기술하면 적절한 답안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바]를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수긍할만한 이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을 적절히 구분함과 동시에 효율성 추구의 필요성과 한계점을 채점기준에 부합하게 논했다면 가점할 수 있음. 	
--	---	--

2.7 답안 사례

[가]에 따르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추구하는 효율성은 자유로운 시장 거래에서의 총잉여 최대화 추구로 구체화되며, 이는 시장 균형에서 달성된다. 또한, 대기오염 등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는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정부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등을 통해 개입하여 이를 개선할 수도 있다.

[나]는 부부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팔아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서로에게 쓸모없게 됨으로써 효율성(총잉여)이 감소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다]는 자원이 부족한 두 나라가 교역을 통해 모두 이득을 보는 효율성(총잉여) 증대의 상황을 보여준다. [라]와 [마]는 모두 대기오염과 소음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로 효율성(총잉여)이 감소한 상황이지만, [마]에서는 정부 개입의 부재로 과도한 소음이라는 비효율성이 유지되는 반면, [라]에서는 정부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대기오염 감소로 효율성(총잉여) 증대를 꾀하고 있다. [바]에 따르면 IT 기술과 빅데이터를 통해 공급자가 개별 소비자에게 다른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 잉여로 빼앗아 올 수 있는데 기존의 시장 균형 가격에서 최대화된 총잉여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임을 [가]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나]와 [마]는 총잉여가 감소한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반면, [다], [라], [바]는 총잉여가 증대하거나 최대화된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상황이다.

[다]의 효율성 추구를 통한 두 나라 모두의 이익 증대와 [마]의 효율성 달성 실패로 인한 소음의 과대 발생이라는 사회 문제는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경우 사랑 등과 같은 정서적 가치가 무시될 수 있으며, 환경오염을 상품으로 인식하여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윤리의식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고, 시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잉여를 생산자가 모두 가져가게 되어 분배악화와 형평성 저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 [라], [바]는 각각 보여 준다.

3. 문항카드 3 - 인문계열 2차 1번

3.1 일반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일반)전형	
계열(과목)/문항번호	인문계열 2차(인문계, 영미문화계, 사회과학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 1번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통합사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 현상 · 서열화 사회적 현상 · 사회 불평등 양상 · 분석/설득 · 갈등/사회통합 · 추론/비판적 이해
예상소요 시간	40분	/ 100 분

3.2 문제 및 제시문(문항)

제시문 [나], [다], [라] 각각의 내용에 근거하여 [가] 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와 [바]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서열화는 이미 상당한 ‘진도’를 나간 상태이다. 대개 ‘입결’(입시결과)에 따라 서열이 좋다고 인정받는 학과의 학생들이 우월감이 높다. (….) 전과에 성공하더라도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는다. A씨의 친구는 1학년을 마치자마자 같은 캠퍼스 내 타 학과로 전과했다. “그 친구가 입학할 때 그 학과는 정원 미달이었어요. 입학 점수가 정말 낮았는데, 전과를 하고 나서 이전 학과 친구들을 좀 무시하더라고요. 개 친구들 사이에서 ‘전과한 주제에’라며 말이 많았어요.” (….) B씨는 게시판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입결로 서열화하는 글들이 게시판에 꽤 많이 올라와요. 반박 댓글이 달리긴 하지만 심각한 문제죠.”

- 『한겨레』 2014. 7. 16. 재구성

[나] 집을 나서기 전에 날씨를 살피고 우산을 챙기거나 따듯한 옷을 껴입는 행위처럼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한다. (….)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되는 현상처럼, 자연 현상은 같은 조건에 따른 결과가 언제, 어디에서나 똑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 현상은 보편성을 지닌다. (….) 한편 일반적으로 지능이 높으면 학업 성취도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가 있듯이,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같은 조건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을 뿐이고, 그 인과 관계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이처럼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작용하는데, 이는 사회·문화 현상이 인간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이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다] 최고 중의 최고로 구성된 어떤 엘리트 하키 선수팀을 선택하더라도 그들의 40%는 1~3월, 30%는 4~6월, 20%는 7~9월, 10%는 10~12월에 태어났다. (...)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다. 점성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1년의 첫 세 달이 어떤 마법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캐나다에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헤아리고 그에 맞춰 하키 클래스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월 2일에 열 살이 되는 소년은 그해 말까지 만으로 열 살이 되지 못한 소년과 함께 하키를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사춘기 이전에는 열두 달이라는 기간이 엄청난 신체 발달의 차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하키에 미친 나라, 캐나다에서는 코치들이 아홉 살이나 열 살 무렵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후보군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이때 몇 달간 더 숙달될 수 있는 기회를 누린 소년들이 더 크고 보다 재능이 있어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물론 출발점을 놓고 보면 후보군의 강점은 선천적이라기보다 그저 몇 개월 더 일찍 태어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창 성장기에 있는 소년들은 훌륭한 코치와 강도 높은 연습 덕분에 정말로 뛰어난 선수로 거듭나게 된다.

- 말콤 글래드웰, 『아웃라이어』

[라] 내가 산 복권의 가격은 \$1이고 기댓값은 \$0.56이므로 \$1을 주고 사는 것은 손해다. 하지만 운이 좋아서 나는 \$2에 당첨되었다. (...) 큰수의 법칙에 따르면 독립적 시행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결과의 평균은 기댓값에 점점 가까워진다. 나는 오늘 운이 좋아서 기댓값이 \$0.56인 \$1짜리 복권으로 \$2에 당첨이 되었다. 나는 내일도 같은 복권을 사서 \$2에 당첨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 \$1짜리 복권 1,000장을 샀을 때,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거의 확실하다. 또 내가 그 \$1짜리 복권 백만 장을 \$1,000,000를 주고 산다면, 나에게 돌아올 돈은 \$560,000에 매우 가까울 것이다. 즉, 확률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충분히 많은 시행이 있어야 기대하는 결과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 Charles Wheelan, 『Naked Statistics』 번역 재구성

[마] 생전 처음 만나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겉모양이나 몇 개의 소문으로 그를 온당하게 평가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좀더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일하며 그리하여 깊이 있는 인식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까닭은 이쪽의 개인적인 조금 때문이기도 하지만 크게는 인간관계가 기성의 물질적 관계를 닮아버린 세속의 한 단면인지도 모릅니다. (...) 바늘 구멍으로 황소를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이 바라본다는 행위는 그를 알려는 태도가 못됩니다. 사람은 그림처럼 벽에 걸어놓고 바라볼 수 있는 정적 평면이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발휘되는 가능성의 총체이기에 그렇습니다. 한편이 되어 백지 한 장이라도 맞들어보고 반대편이 되어 혈고 뜯고 싸워보지 않고서 그 사람을 알려고 하는 것은 흡사 냄새를 만지려 하고 바람을 동이려 드는 헛된 노력입니다.

- 신영복,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원래 착하기 때문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원래 악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원래 그런 류의 사람이고, 부자는 원래 그런 류의 사람이다.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은 원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 프레임에 입각한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 수는 있다. (...)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의 힘을 직시하게 되면, 나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조금은 더 관대해진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조금 덜 영웅시하게 된다. 쉽고 익숙한 ‘사람 프레임’에서 불편하지만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최인철, 『프레임』 재구성

3.3 출제 의도

- 이 문항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을 이해하여, 제시문에서 나타난 사회 문제의 맥락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제시문들에서 도출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설득적인 글을 쓸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제시문 [가]에서는 대학생들이 입시결과를 바탕으로 서로를 서열화하는 사회·문화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 제시문 [나]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에는 확률과 개연성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 제시문 [다]에서는 개인의 실력/능력이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제시문 [라]에서는 충분히 많은 시행이 있어야 기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제시문 [마]에서는 인간은 입체적인 존재로 관계를 통하여 가능성의 총체를 평가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 제시문 [바]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의 힘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을 평가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이 문항을 해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에서 서열화라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현상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제시문 [나], [다], [라]를 근거로 파악한 후, 제시문 [마], [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4 출제 근거

3.4.1 교육과정 근거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 국어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 읽는다.	제시문 [마],[바]
	성취 기준 2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제시문 [나],[다],[라]
	성취 기준 3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제시문 간 연계
	성취 기준 4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제시문 간 연계
	성취 기준 5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제시문 간 연계

성취 기준 6	[10국03-05] 글이 독자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 간 연계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12화작01-03]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제시문 간 연계
성취 기준 2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제시문 간 연계
성취 기준 3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제시문 간 연계
성취 기준 4	[12화작04-02] 화법과 작문의 가치를 이해하고 진심을 담아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 간 연계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제시문 [다],[라]
성취 기준 2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제시문 [가],[다],[라], [마],[바]
성취 기준 3	[12독서02-04]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며 감상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마]
성취 기준 4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가],[다],[라], [마],[바]
성취 기준 5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가]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제시문 [가]
성취 기준 2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제시문 [가]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2사문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제시문 [가],[나],[다], [라]
성취 기준 2	[12사문02-04] 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탈 행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다.	제시문 [가],[바]

	성취 기준 3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나],[마],[바]
	3.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제시문 [나],[마],[바]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12윤사01-01]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우리의 삶에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필요한 이유를 탐구할 수 있다.	제시문 [바]

3.4.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교과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여부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18	12-13	제시문 [나]	○

교과서 외						
자료(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여부
한겨레 신문	박선희	한겨레 신문사	2014.07.16.	신문기사	제시문 [가]	○
아웃라이어	말콤 글래드웰	김영사	2009	36-39	제시문 [다]	○
Naked Statistics	Charles Wheelan	W. W. Norton & Company	2013	78-79	제시문 [라]	○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돌베개	1998	245-246	제시문 [마]	○
2.1프레임	최인철	21세기북스	2016	165	제시문 [바]	○

3.5 문항 해설

3.5.1 위원회 자체 평가 의견

인문계열 2차 1번 문항은 문제가 있는 사회적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서술하는 문제로 <국어>, <사회·문화>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에 해당한다. <사회·문화>의 주요 성취기준을 기저로 하여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측정하고 있다.

입시 결과로 서열화하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주어진 지문을 토대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문항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통합사회>, <사회·문화>의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며,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 및 차이점을 비교하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하며,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과의 각 하위 과목들의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문항에 해당한다.

자연 현상과는 구별되는 사회 현상의 특징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함을 파악하는 <사회·문화> 1단원에 대한 학습만으로도 문제를 풀어내는 데 지장이 없으며 수험생 다수는 논술 문항이 의도하는 바를 제시문 숙지를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고,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 <독서>의 성취기준이 고루 발견된다. 제시문들은 ‘서열화’라는 화두로부터 깔끔하게 각각의 요지를 파악하고 다시 이 화두에 적용하도록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논제의 발문과 더불어 정돈된 문항이다. 문제에서 제시문을 근거로 이유를 설명하고 제시문을 참조하여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요구하고 있어 <국어>과목의 성취기준을 충족한다.

제시문 [가]는 신문의 기사로 입시 결과에 따른 서열화 현상과 관련하여 개인이 사회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는 <통합사회> 성취기준인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한다. 입시 결과와 서열화라는 주제의 익숙한 내용이며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독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는 <통합사회>,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고 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탈 행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사회·문화>의 성취기준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 <언어와 매체>에서 매체의 유형과 특성의 요소로 다양한 매체의 유형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그 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독서의 다양한 매체자료 읽기에 해당한다.

제시문 [나]는 <사회·문화> 교과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사회·문화>의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단원에서 학습하는 기본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개념을 설명하는 글이고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포함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사회·문화>의 성취기준을 찾을 수 있으며 사회·문화 현상의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므로 개연성과 확

률의 원리가 나타난다는 내용은 <사회·문화> 교육정의 성취기준인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부합하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한다. 공통과목인 <국어>의 읽기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일반 선택 과목인 독서의 사회·문화적 글 읽기 요소에 해당한다.

제시문 [다]는 그저 몇 개월 차이로 달라지는 하키 선수들의 예에서 우연이라는 기제가 작동함을 파악하고 <독서>의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어야 한다. 제시문 [다]는 「아웃라이어」를 발췌한 내용으로 재능을 천부적인 성격으로 판단하였으나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 엘리트 하키 선수팀의 출생 월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비중이 1~3월에 제일 많은 것은 캐나다에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헤아리고 그에 맞춰 하키 클래스를 구성하기 때문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사회·문화> 교육과정 성취기준인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 및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에 해당하고, <독서> 교과에서 비판적 독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독해할 수 있는 역량을 판단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은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 것과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제시문 [라]는 충분히 많은 시행이 필요함을 찾아내며,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고,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독서>의 성취기준을 활용해야 한다. 제시문 [나], [다], [라]는 모두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는 <사회·문화> 과목의 성취기준에 부합한다. 제시문 [라]는 확률적 사건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안정적으로 얻으려면 충분히 많은 시행이 있어야 함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사회·문화> 교육과정 성취기준인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 및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요하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한다. 또한,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 성취기준인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다] 제시문이 운에 의해서 누군가가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지문이라면, [라]의 지문은 효율적인 처지에서 생각했을 때 운에 맡겨 행운을 입을 확률과 행운을 입지 못할 확률을 계산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독서> 과목의 ‘독서의 방법’ 영역 성취기준인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과 <사회·문화> 과목의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영역 성취기준인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능력에 도달할 수 있다면 문제를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다수의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저자인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발췌한 것으로 내용과 함의가 모두 품위가 있으며 바람직하다.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고,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 <독서> 과목 성취기준과 연결된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문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생활과 윤리>의 성취기준도 찾아볼 수 있다. [마] 제시문에서는 <독서> 과목의 성취기준인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 것과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며 감상적으로 읽는 것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 과목의 ‘사회 계층과 불평등’ 중에서 ‘사회 불평등’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 과목 성

취기준 중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지는 능력과 하위문화의 의미를 주류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다양한 하위문화의 특징과 기능을 분석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제시문 [바]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의 힘을 직시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는 <국어>,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고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독서>, 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탈 행동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문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생활과 윤리>,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우리의 삶에서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이 필요한 이유를 탐구하는 <윤리와 사상>의 성취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제시문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착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람 프레임에서 벗어나 진실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 프레임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사회·문화> 교육과정 성취기준인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설명하고 역할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것,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하위문화의 의미를 주류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다양한 하위문화의 특징과 기능을 분석하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 성취기준인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우리의 삶에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필요한 이유를 탐구할 수 있는 것, <독서> 과목 성취기준인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한다.

본 문항은 사회 전반의 프레임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도록 요구한다. 제시문은 교과서, 서적, 신문 기사 등 다양한 출처에서 가져왔지만, 전반적으로 제시문의 분량이 많지 않고 평이해서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습자라도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습자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제시문의 용어와 문장, 표현 등이 쉽게 풀이되어 있으며, 논제의 발문이 구체적이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능력을 지닌 학생이라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답안 작성이 가능한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또한 <사회·문화> 과목 성취기준 중 일부만 달성할 수 있어도 제시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이다.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설명하는 것은 고전적인 논술 문제의 패턴이므로 논점을 파악하여 서술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각 제시문이 활용되는 범위도 문제에서 지정해주었기 때문에([나], [다], [라] - [가]의 문제점 분석 / [마], [바] - 해결방안) 문제 그대로 글을 구성하면 되는 간단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논술 제시문 역시 대중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지문 길이가 짧고 문장이 간단명료하여 난이도가 높지 않다.

3.5.2 출제 검토 교사 의견

인문계열 2차 1번 문항은 <사회·문화>의 주요 성취기준을 기저로 하여 출제되었다.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고,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 <독서>의 성취기준이 고루 발견

된다. 제시문들은 ‘서열화’라는 화두로부터 매우 깔끔하게 각각의 요지를 파악하고 다시 이 화두에 적용하도록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논제의 발문과 더불어 굉장히 정돈된 문항이다. 문제에서 제시문을 근거로 이유를 설명하고 제시문을 참조하여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요구하고 있어 <국어>의 성취기준을 충족한다.

제시문 [가]는 신문의 기사로, 입시결과와 서열화라는 주제의 익숙한 내용이며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독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는 <통합사회>,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고 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탈 행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사회·문화>의 성취기준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입시결과를 갖고 서열화하거나 특권집단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고 단 한 번의 입시 결과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잠재력까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성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성을 존중하거나 사회적 불평등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보면 교육과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다.

제시문 [나]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사회·문화>의 성취기준을 찾을 수 있으며 사회·문화 현상의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를 파악하여야 한다. 자연 현상과 비교되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에서 원인에 따른 결과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자연 현상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은 원인에 따라 결과는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는 개연성과 확률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사회·문화> 수업에 성실히 참여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교과서의 내용을 제시하였기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였다.

제시문 [다]는 그저 몇 개월 차이로 달라지는 하키 선수들의 예에서 우연이 작동함을 파악하고 <독서>의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역량은 현재 주어진 능력이나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초기의 능력이나 환경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후 다른 외부요인, 예를 들면 다양한 노력과 경험 그리고 환경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에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된다.

제시문 [라]는 충분히 많은 시행이 필요함을 찾아내며,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고,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독서>의 성취기준을 활용해야 한다. 이 제시문에서는 큰수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확률적인 사건의 경우에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많은 시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입시결과라는 한 번의 기회로 얻은 결과에는 능력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해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행지식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하고 있다. 제시문 [나], [다], [라]는 모두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는 <사회·문화> 과목의 성취기준과 부합한다.

제시문 [마]와 [바]에서는 개인을 이해할 때 겉모습이나 주변의 소문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사람 프레임’이 아니라 ‘상황 프레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내면적인 모습까지 이해할 수 있는 총체적 판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사회> 교과나 <사회·문화> 교과 시간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이행했다.

제시문 [마]는 다수의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저자인 신영복의 글로 내용과 함의가 모두 품위가 있으며 바람직하다.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

고,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 <독서> 과목 성취기준과 연결된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문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생활과 윤리>의 성취기준도 찾아볼 수 있다.

제시문 [바]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의 힘을 직시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는 <국어>,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고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독서>, 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탈 행동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문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생활과 윤리>,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우리의 삶에서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이 필요한 이유를 탐구하는 <윤리와 사상>의 성취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인문계열 2차 1번은 대학생들이 같은 대학 내에서 또는 같은 학과 내에서 서열화 또는 차별된 집단 의식을 갖는 문제점에 대해 각각의 제시문을 토대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문제이다. 전체적으로 총 6개의 제시문 중에 교과서 자료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5개의 제시문이 교과서 밖의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점은 있으나 평소 고등학교 생활에서 신문읽기나 독서 활동에 충실히 참여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며 난이도 역시 고등학교 국어 및 사회 교과와 연계하여 제시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내용에 포함된다.

3.5.3 자문위원 평가 의견

인문계열 2차 1번 문제는 14명의 자문교사 100%가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고 교육과정 수준에도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문제의 교육과정 범위와 문제의 수준 모두 평균 4.50점으로 평가되었다(5점 만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제시문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도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출하였다. 제시문 [가]의 범위는 평균 4.57, 수준은 4.43이다. 제시문 [나]의 범위는 평균 4.79, 수준은 4.86이다. 제시문 [다]의 범위는 평균 4.14, 수준은 4.36이다. 제시문 [라]의 범위는 평균 4.14, 수준은 4.36이다. 제시문 [마]의 범위는 평균 4.36, 수준은 4.43이다. 제시문 [바]의 범위는 평균 4.36, 수준은 4.50이다. 문제 난이도에 대한 총평은 평균 3.0이며, 제시문 난이도에 대해서는 2.57로 적절한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문위원 14명의 인문계열 2차 1번 문제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제시문은 대학 서열화 문제를 다룬 기사문을 재구성하였다. 내용 요소는 사회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사회·문화>의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단원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담겨 있다. 학생들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자신들의 대학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접근할 것이다. [가] 제시문에 나타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사회·문화>를 이수한 학생이라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 <사회·문화> 1단원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고,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나] 제시문에서 자연현상과는 구별되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매우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므로 [가] 제시문에 나타나는 현상의 문제점을 큰 무리 없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들을 통해 제시문 [가]는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한 제시문으로 보인다.

[나] 제시문은 <사회·문화> 성취기준인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을 자연현상의 특성과 비교하고 있다. <사회·문화>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므로 교육과정 범위 내에 있다. <독서>의 ‘독서의 방법’ 영역 성취기준인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능력과 <사회·문화>의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영역 성취기준인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문화>의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서 다루는, 사회 문제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한다는 내용에 해당한다. 사회·문화 및 사회문제 탐구에서 사회문제와 자연 현상을 비교하는 지문이 자주 나오고, <사회·문화>의 수능에도 자주 출제된 내용이다. 사회문제 탐구에서도 자연 현상과 사회문제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문 해석이 쉬웠을 것이며 해당 과목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지문에서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을 비교하고 있으므로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시문 [나]는 위에서 언급한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요소를 담고 있다. <사회·문화>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문단으로 사회현상을 인간의 ‘의지’의 유무로 자연현상과 구분하고 있다. 매우 기초적인 내용으로, <사회·문화>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제시문에서 예시 사례까지 들어 사회현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문단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제시문 [나]를 통해 제시문 [가]에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제시문 [다]는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사회·문화> 성취기준인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능력과, 바람직한 연구 태도와 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 절차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제시문 [나]를 읽고 자연 현상과 구별되는 사회 현상의 특징을 추출하는 작업을 거치면 제시문 [다]가 의도하는 바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다는 점, 개연성과 확률성이 나타난다는 점, 그래서 예외와 특수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사회·문화>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제시문 [나]를 통해 제시문 [다]를 이해할 수 있다. <생활과 윤리> 성취기준인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면, 롤즈와 노직의 분배 정의를 적용할 수 있다. 둘다 인간의 운에 의해서 취득된 사회적 재화에 관해 설명하며, 둘의 분배 정의에 대해 배운 학생들은 운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이 제시문에는 필자의 의도나 주제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독서>의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성취기준이 요구된다. 추론적 읽기를 바탕으로 개인의 능력이 어떠한 외부의 불특정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라]는 통계를 바탕으로 합리적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내의 개념을 바탕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 성취기준인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것과 바람직한 연구 태도와 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 절차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시문 [라]는 또한 제시문 [나]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제시문 [나]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 중 확률의 원리를 통해 [라] 제시문에 나타난 현상을 파악하고 [가]에 나타난 현상의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다. ‘확률’은 ‘확실’과는 다른 개념임을 유념하여 제시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제시문에 비해 [라] 제시문의 ‘큰수의 법칙’, ‘독립적 시행’, ‘기댓값’ 등의 개념이 다소 어렵게 여겨질 수는 있으나 핵심을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중 하나인 확률성에 근거하여 파악할 수 있다면 문단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라] 제시문 또한 [다] 제시문처럼 굳이 <사회·문화>를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제시문 [나]를 통해 제시문 [라]를 이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제시문 [라]는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제시문 [마]는 개인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그림처럼 벽에 걸어 놓고 바라보는 정적평면이 아닌 관계를

통해 겪어본 다음 평가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는 <사회·문화 성취기준인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한다. 또한, <사회·문화> 성취기준인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능력과 바람직한 연구 태도와 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 절차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논술 문항 3에서 제시문 [마]는 제시문 [가]에 나타난 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문단이므로 위에서 제시한 성취기준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바람직한 연구 태도 등의 내용 요소들을 추출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사회구조나 제도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이나 개인간의 관계, 상황맥락에서 바라보는 미시적 관점 속에서 사회현상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수능 문제, 학교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를 통해 꾸준히 평가되어 온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문화>를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제시문이 비록 교과서 밖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내포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일지라도 [가]와 [마] 제시문을 [나] 제시문과 함께 맥락적으로 독해 한다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므로 제시문 [마]는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제시문 [바]는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심리학에 기반하여 통찰력 있게 보여준다. 작가의 생각이 담긴 글에서 작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잘 파악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의 내용은 교과서로 접하기는 어렵지만 <국어>를 학습한 학생이 독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어>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사회·문화> 성취기준인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것과 바람직한 연구 태도와 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 절차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시문 [바] 또한 제시문 [가]에 나타난 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문단이므로 위에서 제시한 성취기준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바람직한 연구 태도 등의 내용 요소들을 추출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사회 구조나 제도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이나 개인간의 관계, 상황맥락에서 바라보는 미시적 관점이라는 개념들을 활용하여 논지를 진행시킨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일지라도 [가]와 [바] 제시문을 [나] 제시문과 함께 맥락적으로 독해한다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제시문 [바]는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사회탐구 성취기준인 사회적 소수자 및 차별의 의미를 이해하고, 대중매체(TV, 영화, 광고 등)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차별 양상을 파악하는 것과 <생활과 윤리> 성취기준인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된다.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미래에 대해 프레임을 씌워서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을 롤즈와 노직의 공정한 분배에서 비판할 수 있다. 또 소수자 우대정책의 단점으로 제시되는 ‘소수자 우대정책에 대한 편견의 시각’을 활용한다면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

제시문들 대부분 교과서 내용이 아니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두 가지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의 입시 결과에 따른 서열화로 인한 문제를 [나], [다], [라]의 기준으로 분석하고, [마]와 [바]의 관점으로 해결 방안을 잡으라는 논제는 명확하다. 제시문 역시 교과서 지문과 신문 기사, 수필, 인문·사회 3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문의 길이가 적당하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여 기준에 따른 독해가 비교적 쉽다. 평소 교육과정 내에서 주어진 사회현상에 대한 학습 주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였으며, 자신의 의견을 논거를 들어 주장하는 말하기나 글쓰기를 해 본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주어진 제시문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고민하는 노력까지 절약할 수 있으므로 평소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학습 내용을 적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시생이라면 평이하게 느꼈을 것이다. [가]의 현상은 요즘 학생들이라면 많이 접할 수 있는 사안이며, 학생들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제시문 [가]의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 상황에 담긴 문제를 다면적으로 파악하고 각 제시문의 관점을 파악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복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한다. 문제 해결 방안은 제시문에 기반하여 설명한 뒤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잘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만은 않은 문제이다. 제시문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수준의 책에서 발췌한 경우가 많아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가 소수자 우대 정책과 비슷한 맥락으로 출제되었으며, 다만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미래를 차별과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비판을 유도한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윤리적으로 항상 논쟁이 되었던 문제이며 지문도 복잡하지 않아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일지라도 [나] 제시문을 기반으로 다른 제시문들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논지를 전개시켜 나갈 수 있는 수월한 문제이다. 다만 논지를 전개시키는 과정 속에서 사회현상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현상의 관점이나 연구의 태도와 접목시켜야 한다면 총체적인 사고과정이 필요하기도 하다. 제시문 [나]에 등장한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들을 다양하게, 혹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접목시키거나 ‘관계’, ‘상황 맥락’ 처럼 사회·문화 이수자들의 이목을 끄는 키워드를 통해 출제 의도와는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면 채점기준에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반적으로는 제시문이 어렵지 않고 문제가 의도하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에 논술전형을 꾸준히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3.6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기준	배점
없음	1) 제시문 [가]에 기술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2) 제시문 [나], [다], [라]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입시결과를 근거로 서열화하는 현상에 제대로 적용하였는가? - 제시문 [나]의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언급하여야 함. 둘 다 언급하면 가점 (a) 입시결과가 좋은 학과의 학생이 입시결과가 나쁜 학과의 학생보다 점수가 반드시 높다고 볼 수 없다. (b) 입시 점수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반드시 능력이 뛰어나거나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없다. - 제시문 [다]와 [라]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였다면 모범 답안. 제시문 [라]를 통해서는 단 한 차례의 시험으로는 그 사람의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제시문 [다]를 통해서는 입시결과가 (그 사람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우연적 요인이 그 사람의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제시문 [라]와 관련해서 입시에서 시험은 한 번 보지만 시험에는 다수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시문의 예처럼 복권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 가점 3) 제시문 [마], [바]의 요지를 파악하여 그것을 활용하여 [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는가? 4) 제시문 [가]에 나타난 서열화의 문제를 윤리적, 정서적 관점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	320

	하는 것이 아닌, 제시문 [다]~[바]를 바탕으로 판단이 정확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는가?	
--	---	--

3.7 답안 사례

제시문 [가]는 대학생들이 입시결과를 바탕으로 서로를 서열화하는 현상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열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나]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능이 높으면 학업 성취도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가 있을 수 있듯이 입시결과가 좋지 않은 학과의 학생이 반드시 입시결과가 좋은 학과의 학생보다 점수가 낮은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이 반드시 실력이 뛰어나거나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라]에 나타나 있듯이 확률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충분히 많은 시행이 있어야만 기대하는 결과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입시결과는 단 한 번의 시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문제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 외에 우연적인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시험 당일 아픈 운이 나쁜 학생이나, 찍은 문제가 많이 맞은 운이 좋은 학생이 있기 때문이다.

실사 입시결과가 그 사람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의 내용을 보면 입시결과에 따른 서열화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1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좋은 코치와 훈련 프로그램을 경험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실력이 좋은 하키 선수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입시결과에서 드러난 개인의 능력도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입시결과에 따라 서열화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 [마]에서 제안한 것처럼 사람을 입체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의 다양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입시결과처럼 단편적인 정보에 의해 조급하게 서열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바]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의 힘을 직시한다면 입시결과가 좋은 사람을 과대평가하는 일도, 입시결과가 나쁜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일도 줄어든 것이다.

4. 문항카드 4 - 인문계열 2차 2번

4.1 일반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일반)전형	
계열(과목)/문항번호	인문계열 2차(인문계, 영미문화계, 사회과학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 2번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문학, 언어와 매체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론적 읽기, 의도, 목적, 정보, 배경 지식, 사회 문화적 배경 · 인식의 한계, 관점, 다른 언어, 소통 문화 · 언론의 역할, 기자, 여론, 사실, 사건 · 주관적 감정, 사회적 차원의 감정, 보편적 인류애, 공감, 공평한 관찰자
예상소요 시간	60분	/ 100 분

4.2 문제 및 제시문(문항)

제시문 [가]를 토대로 [나], [다]의 문제점을 각각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라]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 [바], [사]를 종합하여 논하시오.

[가] 추론적 읽기란 글에 드러난 여러 가지 단서와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며 읽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필자의 의도, 글을 쓴 목적, 숨겨진 주제 등을 추측하며 읽어야 한다.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읽지 않거나 필자의 전제를 오판하게 되면, 독자는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는 데에 실패할 것이다. (...) 추론적 읽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배경지식과 경험, 글에 나타난 담화 표지, 글에 사용된 어휘나 문맥 등을 활용하여 생략된 내용을 추론한다. 둘째,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표현 방법 등을 토대로 필자의 의도나 글을 쓴 목적, 숨겨진 주제 등을 추론한다.

-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재구성

[나] 그는 다시 난장판이 되어 가고 있는 목욕탕을 들여다보았다. 욕조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정교한 솜씨로 정을 대어 망치질을 하고 있는, 빛바랜 누런 티셔츠의 사내가 오늘 공사를 떠맡은 임 씨였다. (...) 자칭 기술자라는 임 씨조차 겨울이면 연탄 배달로 샅을 버는 연탄장수가 주업이라서 아무래도 미덥지가 않기로는 매일반이었다. (...) 임 씨가 뽑은 견적대로 일을 맡기고 나서야 그는 아내를 통해 임 씨가 사실은 연탄 배달부로서 여름 한철에만 이것저것 잡일을 하는 어설픈 막일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보나마나 하자가 생길 것이 틀림없다고 믿은 그는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적잖이 기분을 그르치고 말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목욕탕 공사야말로 급수 배관에서 방수, 그리고 미장, 타일까지 전문직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나름대로의 이론에 비추어봐도 전부든 결정임에는 틀림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 미덥지 않게 보인 인상과는 달리 임 씨는 흠집 하나 내지 않고 욕조를

들어내었다.

-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다] 세계대전만큼은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었던 체임벌린 총리는 1938년 9월 말, 절박한 심정으로 독일을 방문했다. 말기 암 진단으로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던 그는, 이번에 반드시 확약을 얻어내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 이전 방문에서 체코슬로바키아에만 야심을 갖고 있다고 히틀러가 말했을 때, 체임벌린은 “히틀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믿었다. 그 약속을 문서로 받아내는 일만 남은 것이다. 다행인 것은, 히틀러가 그를 자기 아파트로 데려가기까지 하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체임벌린은 합의 사항을 간단히 적어둔 메모 용지를 꺼내 히틀러에게 서명하겠느냐고 물었다. 예상대로, 히틀러는 흔쾌히 동의했다.

“그럼요! 물론이죠. 서명하겠습니다.” (...)

그날 오후, 체임벌린은 영국으로 돌아가서 영웅 같은 환대를 받았다. 언론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메모 용지를 꺼내 군중에게 흔들었다.

“오늘 아침 저는 독일 총리 히틀러와 다시 회담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호의적이며, 침공 의도라고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

그러나 1939년 3월, 히틀러가 ‘합의 문서’를 종잇조각으로 만드는 데 채 6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 말콤 글래드웰, 『타인의 해석』 재구성

[라] 언론은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실을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 언론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 및 각종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민이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 여론 형성을 주도하며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취재한 정보를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기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취재를 한다고 해도,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 재구성

[마] 한 부부가 먼 길을 가다가, 남편은 죽고 부인은 추행을 당한다. 살인죄로 체포된 산적과 아내가 사건을 증언한다. 죽은 남편도 그 혼이 무당의 입을 빌려 사건을 증언한다.

먼저 산적이 증언한다. 그는 부인의 미모에 혹하여 남편을 나무에 묶은 뒤 부인을 추행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부인에게 자신과 살자고 했단다. 부인은 남편과 산적이 결투를 벌이면 이긴 사람을 따르겠다고 했단다. 그래서 산적은 남편과 정정당당하게 결투를 벌여 그를 죽게 했다고 한다. 살인한 것이 아니라 결투를 했다는 것이다. 부인의 증언은 이러하다. 산적은 자신을 추행한 후에 가버렸고, 그녀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은 그녀를 극도로 모멸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 순간 그녀가 들고 있던 단검에 남편이 찔려 죽었다는 것이다. 남편의 혼백은 이렇게 말한다. 산적에게 당한 부인은 산적에게 남편을 죽이고 자신을 데려가 줄 것을 애원했단다. 산적은 그녀의 말에 화를 내고 오히려 남편을 풀어주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명예를 잃은 치욕감과 부인에게 당한 배신감으로 자기는 그 자리에서 자결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숲에서 지켜본 목격자가 또 있었다. 목격자인 나무꾼은 다른 증언자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을 증언한다

- 박인기, 『언어적 인간 인간적 언어』 재구성

[바] 어느 부족의 언어에는 성조가 수십 개다. 그들은 어느 열대 지방에 사는 빨갛고 쭈글쭈글한 먹을

가진, 화려한 희귀 새처럼 운다. 이방인의 귀에는 그저 ‘크, 크헉, 흐허, 헉’처럼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수만 가지 문장으로 확장되는지 나도 알지 못한다. 어느 부족의 시제에는 전생과 환생이 들어간다. (...) 어느 나라의 동사는 백오십 번 이상 몸을 바꾼다. 그것은 프리즘에 닿은 빛처럼 여러 갈래로 쪼개지며 굴절된다. 단어가 소리에 반사되어 영혼에 무지개를 비춘다. 어느 민족에게 사랑은 접촉사, 그 이웃에게는 조사다. 하지만 어느 부족에서는 그런 건 본디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여 아무런 명찰도 달아주지 않는다. 어느 부족에게 ‘보고 싶다’는 한 음절로 족하다.

- 김애란, 『침묵의 미래』

[사] 흠은 시인(是認)과 부인(否認)의 감정이 언제나 도덕적 구별의 기준은 아니라고 보았다. 오로지 자신만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은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인과 부인의 감정이 도덕적 구별의 기준이 되려면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즉, 그것은 사회적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느끼는 사회 공통의 감정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사회적 차원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을까? 흠은 이 물음에 인간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인간은 타인의 행복이나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능력으로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감정, 보편적 인류애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공감을 바탕으로 공평한 관찰자로서 자기 자신, 타인, 사회의 이익이나 쾌락을 증진할 수 있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4.3 출제 의도

■ 본 문항은 아래와 같은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 첫째, 교과 내에서 배운 지식을 학교 밖/현실 층위에서 성찰할 때 새로운 문제 제기가 가능한가, 즉, 이론적 층위가 달라지면서 지니게 되는 문제의식 구성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어 교과 내에서 이루어졌던 ‘추론적 읽기’를 ‘세상 밖 읽기’로 확대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 교과 내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하여 당연시하며 학습한 지식을 ‘세상 밖’에 적용하였을 때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문제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 둘째, 단계별 읽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국어 및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가짜 뉴스에 대한 ‘사실적 읽기와 비판적 읽기’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어과에서는 구성주의적 읽기가 강조되면서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읽기 권한이 커졌는데, 이른바 ‘창조적 오독’이라는 명목 아래 숨겨진 정보와 전제, 의도를 차분히 확인하지 않고 선불리 핵심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과에서는 언론의 역할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적 읽기와 비판적 읽기’의 매개가 되는 추론적 읽기에 대한 정치한 접근이 단계별로 이루어진 수험생은 대학에서의 인문 능력(타인에 대한 공감, 세상에 대한 진지한 이해) 및 사회과학 탐구 능력(도구에 대한 의심, 가설에 대한 의심, 데이터 해석의 정확성과 가능성)의 기초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텍스트 읽기’와 ‘세상 읽기’를 연계한 추론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읽기 단계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 셋째, 융합적 해결 능력, 즉, 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구성하고 있는 학습 요소들을 문제에 따라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논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계하여 풀어내고 있는지(국어과와 사회과 융합), [마]와 [바]를 [라]와 관련지어 읽어내는 과정을

풀어내고 있는지(국어/사회/도덕 융합), [사]를 [라]와 관련지어 읽어내는 과정을 풀어내는지(국어 과와 도덕과 융합)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넷째,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재정의, 재맥락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정 교과 지식을 다른 영역에 적용하고자 할 때, 해당 지식의 핵심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여 그 본질을 파손하지 않은 채 다른 영역을 설명할 수 있는가? 최근 사회에서는 특정 영역의 전문가만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복합적이고 복잡한 문제, 즉 ‘융합적 논제, 학제적 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문제를 재정의하고 재맥락화하는 과정에서 원 개념을 명확히 하면서도 타 영역 맥락에서도 그 개념이 적절히 설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의 ‘공감’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나 ‘도덕 교과 의미’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교과에서의 문제’에 적용하여 진술하고 있는지 측정하고자 하였다.

■ 이 논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첫째, 전반부는 제시문 [가]에서 원리를 도출하여 [나]와 [다]에서 관련 현상을 찾아내어 그 문제점을 분석하는 부분이다. 드러나지 않은 정보(타인에 대한 선입견, 사회·문화적 맥락)로써 글을, 사람을, 세상을 얼마나 오독할 수 있는지, 또 그에 따라 책임이 큰 사람이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얼마나 역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
- 둘째, 이를 기반으로 하여 [라]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적절하지 않으면 ‘잘못된 추론’이라는 프레이밍으로 후반부 논제 전반을 해결하지 못하고, [라]부터 새로운 하위 논제를 구성하게 된다. [라]에 나타난 한계를 ‘언론/기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사건을 취재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인식(추론)’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파악해야만,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계하는 통합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 셋째, [라]에 나타난 한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 [바], [사]에서 찾아내어 기술하는 부분이다.

■ 제시문 [가]에서는 추론적 읽기의 정의, 추론적 읽기의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수험생은 여기에서 이후 [나]와 [다]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도출해 내어야 한다.

■ 제시문 [나]에서 ‘그’는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배경지식과 경험이 선입견이 되어 기술자 임 씨를 판단하였는데 그것이 잘못된 추론임을 보여주고 있다.

■ 제시문 [다]에서 체임벌린 총리는 ‘문서’에 ‘서명’을 한 것을, ‘나름대로 정확’한 근거에 따라 히틀러의 진심이라고 믿어버렸고, 그에 따라 역사적 책임이 따르는 판단을 손쉽게 해 버렸다. 체임벌린 총리 역시 잘못된 추론을 해 버린 것이다. 히틀러를 둘러싼, 독일 공동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해석했어야 했다. 즉, 그는 ‘목적에 맞지 않는 추론적 읽기’, 몇 가지 단서만 보고 성급하게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 버리기를 한 셈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목적 자체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전쟁을 피하려는 대담한 계획을 그저 확정적으로 정해놓기만 하며, 히틀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총리로서 진지하게 숨겨진 모든 정보를 낱알이 읽어내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믿음, 정치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선부론 욕심에서 어쩌면 자신이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 믿음에 따라 확증편향적으로 그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확인한 것이다.

■ 제시문 [라]에서는 언론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언급한다. 사실을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도 언급하고 있다.

■ 제시문 [마]에서는 인간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 모두, 심지어는 목격자까지도, 스스로 경험하고 관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시문 [바]에서는 누구에게나, 어떤 공동체이든 각자의 ‘언어’가 있고 그 언어는 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언론인은 누구에게나 ‘다른 언어’가 있음을 그대로 인정해야 함을 추론해 내

어야 한다.

- 제시문 [사]에서는 ‘공감을 바탕으로 공평한 관찰자’가 됨으로써 ‘공통의 관점’을 지녀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감정을 지녀서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4 출제 근거

4.4.1 교육과정 근거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 국어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10국01-01]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듣기·말하기 활동을 한다.	제시문 [바]
	성취 기준 2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제시문 [라],[마]
	성취 기준 3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제시문 [가],[나],[다], [라],[마]
	성취 기준 4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제시문 [가]
	성취 기준 5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제시문 간 연계
	성취 기준 6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제시문 간 연계
	성취 기준 7	[10국03-05] 글이 독자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 간 연계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마]
	성취 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제시문 [가],[라]
	성취 기준 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제시문 [가],[나],[다], [마]
	성취 기준 4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제시문 [나],[다],[마]

성취 기준 5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라]
과목명: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 기준 1	[12언매01-01]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제시문 [바]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제시문 [나],[바]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12화작01-03]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제시문 [라]
성취 기준 2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제시문 [라]
성취 기준 3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제시문 간 연계
성취 기준 4	[12화작04-02] 화법과 작문의 가치를 이해하고 진심을 담아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 [사]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 기준 1	[12정법03-03]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	제시문 [라]
3.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12생윤04-0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와 매체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라]
성취 기준 2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제시문 [사]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12윤사03-05]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제시문 [사]

4.4.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교과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여부
고등학교 독서	서혁 외	좋은책신사고	2019	62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정치와 법	이경호 외	미래엔	2019	104	제시문 [라]	○
고등학교 정치와 법	김왕근 외	천재교과서	2020	107	제시문 [라]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류지한 외	비상	2019	133	제시문 [사]	X

교과서 외						
자료(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여부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원미동사람들)	양귀자	살림	2005	138	제시문 [나]	X
타인의 해석	말콤 글래드웰	김영사	2020	68-69	제시문 [다]	○
언어적 인간 인간적 언어	박인기	푸른사상	2020	31-32	제시문 [마]	○
침묵의 미래(2013 이상문학상작품집)	김애란	문학사상	2013	25	제시문 [바]	X

4.5 문항 해설

4.5.1 위원회 자체 평가 의견

인문계열 2차 2번 문항은 국어 교과의 추론적 읽기를 토대로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문학>, <언어와 매체> 과목의 성취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 교과의 <정치와 법>, 도덕 교과의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목의 교육과정을 두루 포괄하고 있어 학생들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에 적합한 논술 문제이다. 특히 <독서> 과목에서 얻을 수 있는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는 성취기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추론적 독해를 기반으로 각 제시문을 독해하고 종합하여 사고하는 능력이 요구되며, 교육과정에 나온 추론적 독해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작성하는 능력을 담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범위에 해당한다.

<독서> 성취기준인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것과 <사회·문화> 성취기준인 바람직한 연구 태도와 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 절차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것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와 법> 성취기준인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정치 주체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을 탐색하는 능력과 <윤리와 사상> 성취기준인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

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인문계열 2차 2번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독서>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들을 기반으로 제작된 문항으로, 추론적 읽기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 여기에 다양한 외부 제시문과 교과서 재구성 제시문을 조합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만들어졌다. 다른 사회과 의 내용 요소를 기반으로 논술문항을 제작할 때보다 국어과를 활용할 때 교과서 밖 제시문의 활용도가 더 높다고 보이며, 문학과 비문학 제시문이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가] 제시문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다른 제시문을 개념적 범주에 포함시켜 읽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인문계열 2차 2번은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다른 제시문들도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과 같은 익숙한 사회과 제시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론적 읽기의 개념적 정의가 논리적 사고의 출발점으로 확립된 수험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시문 [가]는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찾는 추론적 읽기와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등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사실적 읽기라는 <독서>의 성취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제시문 [가]의 경우 ‘독서’ 교과서의 추론적 읽기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독서>의 성취기준인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것에 대한 내용이며 제시문의 성격은 또 다른 성취기준인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에 해당한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를 재구성한 내용으로, ‘독서의 방법’ 중에서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는 성취기준을 요구한다. ‘추론적 읽기’를 핵심 개념으로 하여 교과서의 설명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법한 내용으로 교육과정에 매우 부합한다.

제시문 [나]는 양귀자의 소설 작품으로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는 <문학> 성취기준과 아울러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 <독서> 성취기준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독서> 과목 중 ‘독서의 방법’에서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는 성취기준이 특히 필요하다. ‘그’가 자신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임 씨’에 대해 잘못된 추론을 했다는 내용을 도출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양귀자의 소설은 고등학교 <국어>, <문학>, <고전>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다]는 체임벌린 총리의 오판 원인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독서>의 성취기준과 부합한다. 제시문은 히틀러의 숨겨진 뜻을 관철하지 못했던 체임벌린 총리의 이야기지만, 사회 교과서의 특성에서 해석해보면 국제 사회의 분쟁과도 연결할 수 있다. 국제 관계의 현실주의 관점에서 각국은 각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분쟁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인용하여 해석할 수도 있다. <독서>의 ‘독서의 방법’ 중에서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는 성취기준에 부합한다. 체임벌린 총리가 히틀러와 독일에 대한 불충분한 배경지식과 사회적 맥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추론에 실패하여 큰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핵심을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시문의 내용 역시 고교 수업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세계대전 및 히틀러에 관한 내용을 제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고교 교육과정에 부합한다.

제시문 [라]는 <정치와 법> 교과서의 내용으로 이 문항의 핵심적 역할인 ‘언론의 역할’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제시문 [라]는 <정치와 법> 교과서를 재구성한 것으로 언론의 역할과 한계를 담고 있다. <정치와 법>의 ‘정치 과정과 참여’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교육과정의 범위에 해당한다.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정치 주체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을 탐색한다는 성취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 읽는 <국어>,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

보를 전달하는 <화법과 작문>,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고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 <독서>,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는 <정치와 법>,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생활과 윤리>의 성취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독서>의 ‘독서의 방법’ 영역 성취기준인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내용을 확인하고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과 <정치와 법>의 ‘정치과정과 참여’ 영역의 성취기준인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과 연결하여 문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제시문의 내용 역시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를 재구성한 것이며, 정치와 법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주제인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교 교육과정에 완전히 부합한다.

제시문 [마]는 ‘언어적 인간 인간적 언어’를 재구성한 것으로 하나의 사건을 다양하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상황에서 담긴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 활동인데 <독서>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제시문 [마]는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 <국어>,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독서>의 성취기준과 부합한다. 고등학교 <독서>의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인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과 <언어와 매체>의 ‘언어와 매체의 본질’ 영역에서 성취기준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성을 이해함에 도달할 수 있다면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제시문 [바]는 김애란의 소설 ‘침묵의 봄’을 발췌했다. 언어마다 각자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르다는 것을 담고 있다. 소설의 내용이지만 발췌된 내용만은 언어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서 <언어와 매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한다. 김애란의 소설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언어들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어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하는 <국어>,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는 <언어*>,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는 <문학>의 성취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제시문 [사]는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흠의 사상을 담고 있다.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의 ‘서양윤리사상’ 단원의 내용으로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한다. 제시문 [사]는 공감을 바탕으로 공평한 관찰자로서 사회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는 흠의 생각을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진심을 담아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지니는 <화법과 작문>,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생활과 윤리>,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바람직한 상태를 생각하는 <윤리와 사상> 과목의 성취기준이 확인된다. 제시문 [사]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감정의 역할과 공감이라는 능력을 통한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윤리와 사상>의 성취기준인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흠은 도덕적 시인과 부인의 감정이 도덕적 행위의 판별 기준이 되며, 이성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해당 감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도덕적 행위에 있어 중요한 시인과 부인의 감정이 공감과 보편적 관점을 통하여 사회적인 시인과 부인의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성취기준에 부합한다.

이 문항은 지식을 토대로 사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고양시킬 수 있는 점에서 좋은 주제의 품격있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분량이 짧지만 제시문 [나]와 [다]의 문제점을 각각 분석하고 [마], [바], [사]를 종합적으로 사고한 다음 [라]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복합적인 사고 과정을 담아야 한다. 추론적 읽기의 방법을 토대로 [나], [다] 제시문이 의도하고자 하는 문제를 분석한 후 [라]에서 제기한

언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마], [바], [사]에서 제시한 방향을 종합하여 문제 해결을 방안을 잡으라는 논제이며, 제시문의 내용은 교과서 지문 3개와 소설 2개, 비문학 지문 2개가 전문적인 용어나 어려운 단어 없이 평이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교육과정 내의 학습 활동의 수준 내에서 제시문과 논제가 제시되고 있으며, 글을 읽으면서 추론하고 비판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평소 학습 활동 안에서 글쓰기나 말하기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수행하던 내용으로 평이하게 해결이 가능하다. 교과를 통해 학습한 내용이 중심내용이 되고 구체적인 사례와 개념의 일부를 제시하는 제시문들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논술 문항으로 정규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 성실하게 수업을 받았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논술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4.5.2 출제 검토 교사 의견

인문계열 2차 2번 문항은 국어 교과와 추론적 읽기를 토대로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문학>, <언어와 매체>과목의 성취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회 교과와 <정치와 법>, 도덕 교과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교육과정을 두루 포괄하고 있어 학생들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에 적합한 논술 문항이다. 제시문 [나], [다]를 분석하고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나머지 제시문을 활용하는 문제로, 비판적 사고와 추론적 읽기를 측정한다. <국어>, <사회>, <도덕> 교과와 관련되어 있고, 다른 제시문 또한 별도의 선행지식 없이 제시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기반한 내용을 토대로 교과서와 그 밖의 자료를 적절히 연계하여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였다.

제시문 [가]는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찾는 추론적 읽기와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등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사실적 읽기라는 <독서>의 성취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또한 <독서> 교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제시문으로 추론적 읽기 능력이 요구되며 나아가 사회과 교육과정과도 총체적으로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다.

제시문 [나]는 양귀자의 소설 작품으로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는 <문학>의 성취기준과 아울러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 <독서>의 성취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잘못된 선입관이나 편견으로 인해 올바른 추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며 추론적 읽기를 위해서는 배경 지식과 경험, 글에 나타난 담화 표지, 글에 사용된 어휘나 문맥 등을 활용하여 생략된 내용을 파악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이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에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시문 [다]는 체임벌린 총리의 오판 원인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독서>의 성취기준과 부합한다. 제시문 [다]의 핵심은 올바른 추론적 읽기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표현 방법 등을 토대로 필자의 의도나 글을 쓴 목적, 숨겨진 주제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내용은 국어과 교육과정이나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정치와 법> 교과서의 내용으로 이 문항의 핵심적 역할인 ‘언론의 역할’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여기에서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 읽는 <국어>,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화법과 작문>,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고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 창의적으로 읽는 <독서>,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는 <정치와 법>,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생활과 윤리>의 성취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제시문은 정치와 법 교과서를 활용한 지문으로 언론의 역할에 대해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자세로 정보를 전달하려 해도 잘못된 추론에 의해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묻고 있다. 언론의 역할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행 지식 없이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제시문 [마], [바], [사]는 [라]에서 요구하는 언론의 역할에 대한 각각의 유의점을 제시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문이다. [마]는 직접 경험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음을 통해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인식의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바]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부족간에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언어를 구별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만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사]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 나오는 내용으로 언론 또는 개인이 주관적인 감정을 버리고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관점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는 바로 공감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차원의 감정, 보편적 인류애의 감정을 통해 사회의 이익이나 쾌락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본다.

제시문 [마]는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 읽는 <국어>,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독서>의 성취기준과 부합한다.

제시문 [바]는 김애란의 소설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언어들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의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하는 <국어>,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는 <언어와 매체>,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는 <문학>의 성취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제시문 [사]는 공감을 바탕으로 공평한 관찰자로서 사회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는 흠의 생각을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진심을 담아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지니는 <화법과 작문>,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생활과 윤리>,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바람직한 상태를 생각하는 <윤리와 사상> 과목의 성취기준이 확인된다.

[마], [바], [사]에서는 별도의 선행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어과, 사회과, 도덕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학교수업에 참여한 학생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문항은 각 과목들의 지식을 토대로 사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고양시킬 수 있는 점에서 좋은 주제의 품격있는 문제이다.

4.5.3 자문위원 평가 의견

인문계열 2차 2번 문제의 교육과정 범위와 문제의 수준 모두 평균 4.29점으로 평가되었다(5점 만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제시문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도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출하였다. 제시문 [가]의 범위는 평균 4.86, 수준은 4.93이다. 제시문 [나]의 범위는 평균 4.57, 수준은 4.64이다. 제시문 [다]의 범위는 평균 4.36, 수준은 4.43이다. 제시문 [라]의 범위는 평균 4.64, 수준은 4.57이다. 제시문 [마]의 범위는 평균

4.29, 수준은 4.43이다. 제시문 [바]의 범위는 평균 4.29, 수준은 4.5이다. 제시문 [사]의 범위는 평균 4.79, 수준은 4.57이다. 문제 난이도에 대한 총평은 평균 3.21이며, 제시문 난이도에 대해서는 2.93으로 적절한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래는 자문위원의 인문계열 2차 2번 문제에 대한 의견을 요약한 내용이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독서>의 추론적 읽기에 대한 개념이다. <독서> 교과에서 ‘독서의 방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의 범위에 해당한다. ‘추론적 읽기’에 대한 개념의 정의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 핵심요소를 추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독서의 방법’ 영역에서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는 성취기준을 충족한다.

제시문 [나]는 <문학> 교과서 또는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학생들에게도 친숙한 작품이다.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는 문학의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글이다. 논술 문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는 <독서>의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이다. 제시문 [나]는 제시문 [가]에서 제시한 추론적 읽기가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의 사례를 교과서 밖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문단 속 등장인물을 맥락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해한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이 드러난 제시문으로 [가] 제시문을 통해 [나] 제시문이 추론적 읽기와 관련한 문단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시문 [가]의 성취기준과 내용요소에 부합한다.

제시문 [다]의 경우 역사적 사건을 통해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것을 토대로 글에 나타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 활동이다. 제시문 [가]에서 제시한 추론적 읽기가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의 사례를 교과서 밖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성취기준과 내용요소에 부합하여 교육과정의 범위에 해당한다.

제시문 [라]에서는 언론의 사전적 정의와 기능, 한계점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정치와 법> 과목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며 수능문제 및 교내 각종 수행평가,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외부 강의 등을 통해 교수-학습 과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문계열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언론의 기능과 문제점에 대한 기사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므로 해당 교과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독해 능력을 갖추었다면 제시문을 문항 관련하여 맥락적으로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라] 제시문은 교육과정 범위에 매우 부합한다. 제시문에 나타나는 문제상황을 파악하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따라서 공통 과목인 <국어>의 읽기 영역에서 과정을 점검하며 읽기와 일반 선택 과목인 독서에서 글을 읽으면서 비판하며 대안을 고민하는 읽기가 해당한다. <국어>의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고,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으며,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 <독서>의 성취기준에 해당된다.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만큼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지문이 제시된 것과 함께 적절한 성취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비록 교과서 밖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재미와 교훈을 주는 읽기 쉬운 글로 구성되어 있어 수험생들은 거부감 없이 제시문을 읽어 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마] 제시문부터는 [가] 제시문을 통해 나타난 [나], [다] 제시문의 문제점을 토대로 [라]에 나타난 한계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섬세한 읽기와 판단이 요구된다. 사회·문화 연구 태도 중 ‘객관적 태도’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어 해당교과를 이수한 학생이라면 보다 교과서적인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교과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가] 제시문부터 [라] 제시문으로 이어지는 맥락적 이해를 통해 [마] 제시문에 나타난 상황을 판단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종합해 보았을 때 [마] 제시문은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 제시문은 세 등장인물의 서로 다른 진술을 제시하여 상황에 대한 모순을 만들어 내고 있다. 글의 내용 자체가 고등학생의 독서 수준에서 벗어

나지 않으며 <독서>교과의 성취수준인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과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제시문 일부만 제시되어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는 <독서>의 성취기준 중 일부만 충족하는 문항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제시문 [바]는 제시문 자체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분석했을 때 <사회·문화> 3단원에 등장하는 문화의 속성 중 ‘공유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유성의 특성을 명확히 숙지한 후 글을 맥락적으로 이해했다면 제시문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수월하였을 것이며, <사회·문화> 3단원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중 문화적 배경, 상황, 맥락을 고려하는 상대주의적 관점의 개념으로도 충분히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문단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라] 제시문에 나타난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며, 맥락적으로 제시문 간의 관계를 차분히 연결시켜 나갈 수 있다면 제시문 [바]는 교육과정 범위에 포함된다. 교과서 밖의 지문인 김애란의 작품을 발췌한 제시문이나, 그 내용이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의 성취기준인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는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한다.

제시문 [사]는 경험주의 철학자 흄의 사상을 담고 있다. 흄에 의하면 사회적 차원의 감정을 공유하기 위한 조건으로 공감능력을 제시하는데, 공감능력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공평한 관찰자가 될 수 있고 사회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제시문 [사]의 핵심 내용이다. <사회·문화>에서도 3단원 문화의 속성 중 ‘공유성’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하여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주며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동영상 자료와 그림, 만화를 활용한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학습자들도 스스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수업이 진행 중이어서 교육과정 범위 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윤리와 사상>에 언급된 흄의 사상과 <사회·문화>에서 언급한 문화의 속성인 공유성의 개념을 적절하게 매칭시켜 [라] 제시문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보다 논리적으로 논거가 풍부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은 추론적 읽기를 통해 주관을 배제한 객관성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므로 제시문과 교육과정 내용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답안을 작성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제시문 [사]는 교육과정에 매우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독서>의 ‘독서의 방법’ 중에서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과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는 <독서>의 성취기준에 부합한다.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를 바탕으로 해당 제시문에서 공감을 바탕으로 공평한 관찰자로서 사회적 차원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핵심 내용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항은 제시문 [가]에서 제시하는 추론적 읽기의 개념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추론하여 읽고 [라]의 언론의 역할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시문의 종류가 많아 우선 제시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를 유기적으로 엮어가는 과정에서 학생의 역량이 명확히 갈릴 것으로 보인다.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명확하며 제시문의 길이가 특별히 길지 않고 집중만 해서 읽는다면 제시문의 내용 자체는 평이하다. 제시문이 많고 논제가 까다롭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논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다면 의외로 더 정확하게 방향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논술 방향이 명확하며,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적합하게 출제되었다. 교과서의 지문을 그대로 혹은 재구성한 제시문이 많았으며, 교과서 외의 지문 역시도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빈번하게 접했을 내용을 다루고 있어 선행교육의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논술시험이다. 제시문도 길이가 짧은 대신 6~7개가 제시되어 제시문의 핵심을 도출하여 논제에 맞춰 구조화하는 능력이 필요

하며, 교과서 수준의 간결하게 제시한 제시문이 명확하다. 내용을 유기적으로 엮어 답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 제시문이 읽기 쉽고 교과서와 연계율 또한 매우 높으며 문항이 요구하는 조건들도 매우 간결하고 방향이 명확하다.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하고 교과 간 연결고리를 찾는 능력을 기르고 기출문제, 논술 가이드 등을 사전에 충분히 학습하면 논술 사교육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제시문 또한 대부분 교과서, 신문기사, 인문·사회분야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논술 문제에 대한 분석만 올바르게 할 수 있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을 구성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논술 제시문이 <독서>의 성취기준과 직접 연결되어, 응시생들에게 친숙한 내용이었으리라 생각되며, 그 밖의 제시문도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발췌하였고, 교과서 외의 제시문도 양귀자, 김애란 등 교과서에 수록이 많이 되는 친숙한 작가의 작품을 가져와 평이한 난이도였다고 생각한다. 논술 문제가 크게 [가]를 토대로 [나], [다]의 문제점 분석, [마], [바], [사]를 종합하여 [라]에 대한 해결 방안 논하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논술 문제 역시 복잡하지 않고 선명하게 요구하는 답안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고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제시문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향성이 뚜렷하여 학생들의 사고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제시문에 나타난 내용을 표면적이 아닌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한 학생이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변별력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4.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기준	배점
없음	1) [가]에서 [나], [다]에 적용할 기준을 읽어내었는가? - [가]의 기준을 굳이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아도, [나]와 [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이 적합하게 도출되었음이 파악이 되면 점수 부여 2) [나]와 [다]의 추론 양상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는가? - 공통점은 ‘잘못된 추론’ 이지만, 채점기준1에서 도출된 [나]와 [다]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두 양상을 구분하여 기술해야 함 - [나]와 [다]를 분석할 때 [나]의 ‘그’, [다]의 ‘체임벌린 총리’ 입장에서 기술하지 않고, 수험생 입장에서 ‘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술된 경우 감점: 국어 교과와 기본 교육 내용인 ‘읽기 능력’은 ‘세상을 판단하는 능력’과 동일하다는 전제가 인식되지 않은 것이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다고 볼 수 없음 3) [가]-[나],[다]의 분석 결과를 [라]의 언론의 역할에 적용하여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기술해 내고 있는가? - ‘인간은 보편적으로 추론을 잘못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일반 원리로 기술해 내어야 함 - ‘언론이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함’을 전제하면서 [라]의 의미를 도출해 내었다면 이하 [마]-[사]의 핵심 의미를 관련지어 심도 있게 읽어낼 수 없도록 [라]의 역할을 축소한 것이므로 감점 요인 - [가]-[다]의 분석 결과가 후반부 기술 내용과 관련성 없이 기술된 경우 감점: 전반부 내용은 ‘국어과 교육 내용’이며 후반부 내용은 ‘사회 및 도덕과 교육 내용’인데, 이 둘을 관통하는 통합적 문제의식 구성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이 문제의 궁극적인 평가 목표	480

	<p>4) [마]의 의미를 제대로 추론해 내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의 의미를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말, 확증 편향적인 성향, 기억의 재구성, 자기 정당화 등, 어떤 용어를 빌어 [마]의 의미를 설명하든, 중요한 포인트는 수험생이 ‘객관은 결국 구성된 주관, 주관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사건들’ 등과 관련되는 의미를 기술해야만 이후 내용과 연계가 됨 - [마]에서 ‘나무꾼이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관찰했다, 나무꾼은 사건 당사자와 다르다’ 라는 식의 기술은 후반부 논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감점 <p>5) ‘[라]: 언론의 역할’ 과 관련지어 [마]의 의미를 기술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와 관련하여, ‘독자에게 비판적 읽기 능력이 요구된다’ 라고 기술된 경우 감점: 이 문제 어디에도 ‘비판적 읽기 능력’, ‘비판 능력’ 과 관련된 언급은 없어, 관련된 내용을 ‘추론할 근거’ 도 없음. 또한 논제의 핵심과 관련되는 내용이 아님. 만약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면 사회 및 도덕 교과 등에서 언론과 관련하여 배운 내용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함 <p>6) [바]의 의미를 제대로 추론해 내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에서 ‘언어의 다양성’ 을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의 다양성’ 과 관련짓지 않고, ‘기술된 언어의 특징 그 자체’ 를 기술하고 있거나(전체 논제와 관련짓지 못하였으므로 감점) ‘다양한 배경 지식과 경험’ 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활용하였다면([바]는 후반부 논지를 깊게 하는 것과 관련지어야 하므로) 감점 - [바]의 의미를 기술해 내면서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언어로 표상할 수 있음’ 이라는 의미를 추론해 낸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음 - 지문 [바]의 의미에만 머물지 않고 전체적인 문제의식인 ‘사실을 표상하는 과업’ 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바]의 의미를 읽어내고 있는 경우에 대해 최고 점수를 부여 - [마]와 [바]의 의미를 개개인의 문제, 기자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여 기술한 경우 감점.: [가]-[다]의 분석 결과에서 [라] 이하를 전개할 ‘일반 원리’ 를 도출해 내지 못한 것이므로, 이 도구의 의미를 수험생 스스로 명확히 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음(채점 기준3과 연동)). 예를 들어, 이러한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은 앞부분에서도, “[나]의 ‘그’, [다]의 ‘책임벌린 총리’ 가 잘못 추론했다” 라는 식으로 기술했을 가능성이 큼 <p>7) ‘[라]: 언론의 역할’ 과 관련지어 [바]의 의미를 기술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p> <p>8) [사]의 의미를 제대로 추론해 내었는가?</p> <p>9) 세 번째 방안을 기술하면서, 언론의 역할과 관련지어 특히 [사]에 언급된 내용인 ‘여론의 형성’ 과 관련이 있음을 적시하고 있는가?</p> <p>10) ‘[라]: 언론의 역할’ 과 관련지어 [사]의 의미를 기술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p>	
--	--	--

4.7 답안 사례

[나]의 ‘그’는 잘못된 배경 지식과 경험에 따라 처음 보는 임 씨에 대해 잘못된 추론을 하였다. [다]의 체임벌린 총리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적 의도 실현을 목적으로 보고 싶은 단서만 수집, 히틀러에 대해 오판을 하고 공동체에도 큰 위험을 가져왔다.

이처럼 인물과 사건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점은 [라]에 기술된 언론의 역할 역시 쉽게 실현되기 어려운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언론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더라도, 잘못된 추론의 결과 의도하지 않게 객관성을 잃기 쉽다.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째, 사건의 전모를 온전히 드러내기가 어려움을 인정해야 한다. [마]에서 보듯이, 직접 경험한 사건임에도 당사자들의 보고 내용은 달라서, 모두의 증언을 소상히 들었다 해도 그 진실을 온전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를 개인의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 있는가? 이는 인간 인식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다.

둘째, 취재하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만의 입장과 관점이 다 달라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바]에서 보듯,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부족들끼리의 소통은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르게 표상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구별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사건의 전모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는 인식의 한계와 연동되는 문제이기에 만만한 노력은 아닐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언론인이 공감 능력을 지녀야 한다. 전술한 두 가지 방안만으로는 자칫하면 언론인 개인의 주관으로만 일관될 우려가 있다. [사]에서 보듯이 인간의 ‘공감’ 능력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감정, 보편적 인류애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평한 관찰자로서의 시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